



## 추천사

나는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책을 진심으로 권합니다.

첫번째는 저자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음 안에서 나의 자녀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기 때문입니다(요삼 4).

두번째 이유는 보다 객관적입니다. 리처드 베네트 박사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하여 분명하고 간결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일을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합니다(전 3:11). 그러므로 인간은 영원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으로는 인간을 충분히 그리고 항구적으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늘 공허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 주실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것을 “오 하나님, 당신께서는 당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는 우리 영혼이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라고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 6 하나님을 찾는 당신에게

이 책은 바로 이런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 줍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생생하고 인격적인 지식을 얻어 안식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의 영원한 복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스티븐 올퍼드

## 서문

내 아내 도로시와 나는 여행을 자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들 중에는 바른 인생 길을 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문화와 경제적 배경, 교육 수준도 천차 만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책이 당신의 손에 들어가게 된 것도 결코 우연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동안 수많은 친구들과 나뉘 온 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함께 나누었던 생각 가운데 일부가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이 책을 처음 낼 때의 동기는 개인적인 감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와 내 아내는 결혼 25주년이 다가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글을 써서 책으로 만들어 25,000명에게 희망과 평안을 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혼 생활 1년에 1,000명씩 계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작은 책을 축복하셔서 전세계에 퍼지도록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쁜 일은 이 책을 읽고 삶의 새로운 목적을 찾은 사람들로부터 편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25,000부의 책이 모두 여러 나라 사람들의 손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이후 이 책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용을 수정하여 전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데 도움을 주도록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과, 27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세계에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증보된 두번째 개정판이 독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처음 두 장은 모든 독자에게 똑같이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 1 장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제 2 장은 모든 것을 질문해 보는 사람들을 특별히 염두에 둔 것이지만 모든 독자에게 실제로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각자 자신의 믿음과 태도를 점검해 볼 것을 권합니다. 어쨌든 이 두 장은 전체 모든 주제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른 모든 생각들의 신뢰성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3장에서 8장까지는 당신이 하나님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진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내와 나는 이 지면을 빌려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들려 준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기도와 통찰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라 일일이 이름을 쓸 수 없는 것이 아쉽지만 이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내 도로시의 격려와 사랑과 헌신과 기도가 없었다면 이 책이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뵈뵈에 대해 말하였듯이 그녀에게 말합니다. “그녀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 목차

추천사 .....	5
서문 .....	7
1.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	13
2. 당신의 영적 안내자는 믿을 만합니까? .....	23
3.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	39
4. 사람을 진정으로 구별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	51
5. 무엇이 진정한 문제입니까? .....	65
6. 왜 사람들은 그릇된 길에 빠집니까? .....	75
7.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	89
8. 어디에서 생명을 찾을 수 있습니까? .....	115
9.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	131
10.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143

지질학은 지구의 자서전이다.  
그러나 다른 모든 자서전과 마찬가지로  
지질학도 태초의 기원으로부터 시작하지는 않는다.  
-찰스 라이얼 경(Sir Charles Lyell)-

# 1

##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살** 다 보면 너무 힘든 때를 만나게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존재 여부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설명이 없습니다. 물론 증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당연히 계시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의 맨 처음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입니다. 이 엄청난 선언은 단순하면서도 심오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며, 그는 우주의 창조자라고 선언합니다.

오래전 나의 아내는 유럽에서 아주 대단한 명성이 있는 정신 병원에 수간호사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무신론자라고 자처하는 한 일류 정신과 의사가 아내 도로시에게 믿음에 대한 질문을 불쑥 던졌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정신치료학 분야의 권위자로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다는 걸 아시지요. 선생님은 인정받는 대학 교수시고, 또 의학계에서는 선생님의 명성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무신론자라고 주장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정신치료 연구할 때와 똑같은 열심으로 성경을 읽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장기간 입원해 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변화되어 최근에 퇴원한 환자 몇몇을 예로 들었습니다. 극적으로 변화되어 벌써 생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한두 명은 이름도 댈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 환자들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된 경위를 그 의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의사 자신도 이 환자들이 최신의 정신치료 기술로도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들의 삶이 변화된 현상을 무신론자의 입장에서든 정신과 의사의 입장에서든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도로시에게 말했던 그 의사는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하며 대화를 끝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전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정신과 의사는 7주에 걸쳐 성경을 주의 깊게 읽고 난 후 이제 자기는 무신론자가 아니라고 아내 도로시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에게는 한 가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려면 자신의 생활 자세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시인했습니다. “내 문제는 이제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참 신자가 되면 일어나게 될 변화들을 내가 받아들이기 원치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의사를 위해 십 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그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새로 찾은 믿음과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한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기뻐했습니

다. 그러나 크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롬 10:17)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각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을 넣어 두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스스로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연 세계 속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많은 증거를 주셨습니다. 20세기의 과학이 우주의 신비에 접근하면 할수록, 이 모든 것이 그것을 기획하신 자가 없이 생겼다는 말은 더욱더 타당성을 잃어 갑니다. 기획자, 기술자, 수학자 등으로 구성된 여러 사람들의 창의적인 두뇌 없이도 우주선이 대기권에 진입하고 지구를 돌다가 지정된 시간, 지정된 장소에 착륙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해가 뜨고 지는 것과 사계절, 은하계와 원자, 중력과 사랑의 힘 등은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구상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창조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는 것 대신 “대폭발” 때문이라고 믿으려면 수백만 배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설계가 있으려면 반드시 설계자가 먼저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국가들까지도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마다 실제로 우주가 법칙과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칙을 따라야만 우주선이 지구로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 법칙을 신뢰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법칙을 만든 분, 즉 최고의 계획자의 존재

를 부정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자탄이 폭발할 때 방출되는 엄청난 파괴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은 매초마다 5조(5,000,000,000,000) 개의 원자탄에 맞먹는 양의 힘을 방출하고 있는 것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태양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다른 별들에 비하면 별로 큰 것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별들이 우리 우주에 얼마나 많이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시야 안에 10억 개를 모은다 해도 그것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광대한 우주의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현재 천문학자들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일부 성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의 수십억 배에 이릅니다! 무한한 힘을 가지신 창조주가 없이 어찌 이런 힘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실로 우주를 보면 계획자 하나님, 법의 하나님,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시 19 : 1-4).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롬 1 : 20).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구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광대함과 질서와 힘을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아주 작고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다윗 왕은 이런 문제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시 8:3-4).

오늘날은 대형 천체 망원경이 우리의 시계를 50만 배나 넓혀 주고 또 인공 위성이 우주를 비행하면서 지구로 영상을 전송해 주기 때문에, 별들로 가득한 하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엄청나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같이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한편 지금은 망원경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현미경의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이 작은 세계가 바깥 우주의 광대함만큼 엄청나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연광도 이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세계의 비밀을 밝히는 데는 너무 성급합니다. 과학자들이 이제까지 사용해 오던 실험용 현미경에 잡히지 않는 것을 전자 현미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자 현미경은 무한히 작은 세계의 아름다움과 구조, 법칙, 힘 등을 보여 줍니다.

그러므로 조금 전에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당신처럼 작은 자를 마음에 두시고 계시는지 궁금해 했지만, 이번에는 핵물리학자가 당신에게 정말 작은 것들이 전우주를 보전하는 데 얼마나 중요

한가를 설명하는 말을 들어 보기 바랍니다. 원자를 12조 분의 1인 치 크기의 중성자와 양성자로 분열시키면, 단단한 결합 상태로 있지 않고 엄청난 핵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것도 큰 것 못지않게 창조의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라고 의문을 품을 때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크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는 전혀 다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왜 소중하며 얼마나 고귀한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피조된 만물이 설계와 법과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무한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당신에게 가장 유익한 것만 추구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당신의 영적 안내자가 철저히 신뢰할 만해야 합니다.

## 생각해 볼 문제

1. 당신이 한 줌의 섯가루를 공중에 던졌다면 그 섯가루가 다시 아래로 떨어질 때쯤 시계로 변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까?

2. 우주의 모든 불가사의하고 복잡한 설계가 창조자 하나님 없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습니까?

3. 우주 만물이 그것을 자신의 법과 능력으로 설계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해도 우주 만물 그 자체만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두운 동굴은 햇불을 가진 사람 하나만 있으면  
쉽게 지날 수 있다”고 플라톤은 말했다.

자연은 동굴의 입구에서 비치는 희미한 빛이다.

햇불은 성경이다.

—스트롱(A. H. Strong)—

## 2

### 당신의 영적 안내자는 믿을 만합니까?

**언**젠가 신문에 레이더 관제 요원의 실수로 인해 비행기가 추락하여 엄청난 인명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이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영적 레이더망”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과 비교하면 이 비극적 사건도 아주 사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서로 상반되고 혼동되는 소리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자기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라고 주장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찾는 문제는 영원이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릇된 목소리의 안내를 받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전 영국 수상 글래드스톤(W. E. Gladstone)은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은 그 기원이 특별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성경과 성경에 경쟁이 되는 다른 모든 것 사이에는 무한한 차이가 있다.”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역사상 수많은 위인들이 성경의 독특성을 증거하였지만 성경은 실제로 그 자신의 기록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영적 지도자의 신뢰성에 대해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119: 105).

바로 오늘까지도 사람들은 성경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음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세계의 모든 서적들 가운데 독보적인 위치에 서 있습니다.

성경은 독특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확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하는 많은 인장을 찍어 두셨습니다. 정직하게 탐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경 내용 속에서와 세상 역사 기록 양자로부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딤후 3: 16)이라는 사실을 지지하는 확고한 증거를 찾아 낼 것입니다.

만일 성경을 쓴 사람이 한 사람이라면 성경의 주제가 질서 있게 점진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발견하고도 별로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 중의 책은 한 사람에 의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여러 세기에 걸쳐 여러 문화권에 속한 여러 사람들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일관성 있고도 독특한 방법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정말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고고학자들이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으로 정확하다는 사실을 더욱 확증해 주는 새로운 증거들을 계속해서 발굴해 내고 있습니다. 전에는 가공적 사실로 조롱당하던 사건들이 지금은 현

대 고고학자들의 작업에 의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정으로 모든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지금도 성경 읽기를 마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사실을 중요시하는 과학자들과 사실을 무시하는 참신자들—로 나누어져 있다는 그릇된 착각 때문입니다. 이 말대로라면 진정한 과학자는 참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많은 위대한 과학자들이 이런 가정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비록 성경이 과학 교과서는 아니지만 과학 분야에 대한 성경의 언급은 기존의 과학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목적과 구상은 과학의 한계를 훨씬 능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은 우리가 이 지구에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지상 생활을 마친 후 어디로 가는지도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학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

\* 예를 들면, 1868년 클라인(Klein)이라는 독일 여행가가 오늘날 “요르단”이라고 부르는 고대 모압 땅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돌비를 하나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모압 왕 메사에 의해 쓰여진 34줄의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비문은 그가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킨 것을 기념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서에 나오는 오므리와 아합도 이 비문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두 곳 모두에서 이들 이스라엘 왕들은 모압을 박해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에 발견되는 수많은 사실들이 성경 기록의 역사적 정확성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가요 수학자인 파스칼(Blaise Pascal)은 “이성의 가장 큰 업적은 이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책이 없다면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신뢰성 있는 대답을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이제 성경이 실제로 하나님의 책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증거를 생각해 봅시다.

첫째 증거는 성경이 말한 예언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증거는 성경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에 끼친 성경의 강력하고도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 성경의 예언의 정확성

우리 대부분은 선천적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싶어 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미래에 일어날 가장 중요한 사건 몇 가지를 아주 상세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쯤 당신은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라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당신이 어느 휴일에 전에 전혀 가 본 적이 없는 시골 길을 걷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안내자라고는 당신의 손에 들려 있는 지도가 전부입니다. 어제 당신은 이 지도가 완전히 믿을 만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도에 표시된 대로 강과 마을을 찾아서 거기서 지난 밤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당신은 가야 할 길을 결정해야 합니다. 당신 앞에 있는 이 지역은 전혀 가 본 적이 없는 낯선 곳입니다.

그러나 지도에는 왼쪽으로 돌아가면 숲이 나오고 그 곳을 지나면 큰 호수를 만날 것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신이 그 호수를 보기 원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도의 지시를 따라서 왼쪽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는 데 확신을 갖는 주된 이유는 어제 당신의 지도가 미지의 땅을 정확하게 안내한다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지도는 당신이 원하는 곳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할 곳을 말해 주었고, 그것은 정확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뚜렷한 증거 하나는 성경이 미래 사건을 예언했을 때 그것이 유일 무이하게 정확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많은 예언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수백 년 전에 예언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이스라엘과 중동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물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넓은 범위에 걸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수백 가지의 예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예언들의 대다수가 과거의 역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들이 메시아의 출생과 생애와 죽음에 관한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게 맞추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과거 기록을 근거로 할 때 미래가 성경이 예언한 꼭 그 대로 전개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성경의 예언이 정확하다는 근거가 더 많이 우리 눈 앞에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미래의 신문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윌버 스미스(Wilbur Smith) 박사는 일생 동안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 예언의 정확도를 자세하게 살피는 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많은 예언들과,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다른 사람들의 주장과 비교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슬람교는 마호메트 출생 수백 년 전에 그의 출생을 예언한 것이 있다고 제시할 수 없다. 또한 어떤 종파의 창시자도 자기들의 출현을 예언한 옛날 글들을 정당한 방법으로 찾아 낼 수 없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종류의 “예언들”이 정확하기 위해서는 많은 영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뉴스 매체들은 컴퓨터의 도움과 선거 당일 인터뷰 그리고 역사적 자료를 이용해서 투표가 끝나기 전에 당선자를 예언할 수 있습니다. 갖가지 통계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미리 우승자들을 알아 맞추는 것은 별로 대단한 것이 못 됩니다.

그렇지만 뉴스 보도자에게 지금부터 20년이나 50년 후의 선거에 출마할 사람을 알아맞혀 보라고 해 보십시오. 그에게 누가 당선될 것이며, 당선자가 태어날 장소, 그의 생활 자세 그리고 그의 죽음을 둘러싼 환경 등에 대해 자세한 것을 물어 보십시오. 더 나아가 지금부터 천 년 후에 중동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신빙성 있는 정보를 뉴스 보도자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또 그에게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사라질 도시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해 보십시오.

그 뉴스 보도자에게 새로운 예언이 요구될 때마다 그의 예언 정확도에 대한 신뢰도는 엄청나게 감소될 것이라는 데 대해 당신도 동의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래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경우에는 그 보도자가 처음부터 마지막을 알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 보도자에게 제안했던 것과 같은 세세한 사항들이—훨씬 더 많고 복잡한 세부 사항들과 함께 그리고 더 오랜 기간에 대해—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고대의 두로 성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에 대해 예언하신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성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우선 에스겔 26:3-21에 기록된 예언을 읽어 본 다음 브리태니커 백과사전(*Encyclopedia Britannica*)을 비롯한 역사 기록들을 찾아 보십시오. 두 곳 모두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읽게 될 것입니다. 그중 하나는 예언이고 하나는 역사입니다.

**예언:** 실제 사건이 일어나기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두로 성의 험한 미래를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훼파하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겔 26:1-4). 또한 이 유명한 성이 서 있던 터는 “말간 반석”이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겔 26:4). 심지어는 “네 돌들과 네 재목과 네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겔 26:12)고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명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대의 두로가 “그물 말리는 곳이 되리라”(겔 26:14)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 역사 기록을 읽어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의 옛 성을 멸망시킬 때 예언된 그대로 성벽과 망대를 헐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알렉산더 대왕의 기술자들이 두로의 옛터를 정리하여 “말간 반석”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 성의 부스러기들을 바다에 던져서 섬으로 가는 독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언된 것이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돌들과 재목과 흙이 실제로 물 가운데 던져졌던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고대 두로의 잔해는 바닷

물 속에 잠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리라고 하셨고 또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중동 지역에 두로(Tyre)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1291년 최후로 파괴된 옛 두로 성은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옛 두로 성터를 찾아가 볼 수 있다면 이 예언들이 더더욱 놀랍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기잡는 어부들의 집이 몇 채씩 모여 작은 마을을 이루고 있고, 바다에는 어선이 떠 있고, 바위 위에서는 그물을 말리고 있습니다! 고대의 두로와 같이 상업적으로 번창하던 성이 이런 있을 성 싶지 않은 미래를 가지게 될 것을 인간의 두뇌로 어떻게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피터 스톨너(Peter Stoner)라는 사람은 고대 두로에 대한 일곱 가지 예언을 역사의 기록과 비교했습니다. 그는 에스겔이 예언한 것이 성취될 수학적 확률을 계산해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에스겔이 그 당시 두로를 보고 인간의 지혜로 이런 일곱 가지 예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모두 이루어질 가능성은 7천 5백만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예언들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이루어졌다.”

그러면 한 아이의 출생에 대한 예언들 가운데 단 한 가지만 살펴 봅시다.

은퇴한 세무 공무원인 마태는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성취된 수많은 예언들 가운데 네 가지를 회상합니다. 그 중 하나로 마태는 선지자 미가를 지적합니다. 미가는 당시의 거짓된 통치자들을 향해 통렬하게 책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미가는 언젠가 한 통치자께서 태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 주실 때 희망찬 미래

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오실 지도자가 출생할 장소까지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미 5:2).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필요한 통치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날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미가가 예언한 꼭 그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외적 이유는 로마 황제의 칙령이었습니다. 그 때는 세를 바치는 때였으므로 그의 부모는 제국의 칙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향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많은 유대 고을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던 이 작은 베들레헴에서 통치자가 나오리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거기서 태어날 가능성은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미가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수백 개의 놀라운 예언들 가운데 단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사 46:10).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홀연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네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네게 보였느니라”(사 48:3, 5).



예언들을 하나님께서 내셨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 100%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역사는 입증했습니다.

## 성경의 강한 영향력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두번째 강력한 증거는 성경이 끼친 영향력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믿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어김없이 성경의 메시지가 인간을 사회적, 문화적, 개인적으로 고귀하게 하였습니다.

이 책의 개정판이 인쇄에 들어가기 직전 새로 사귄 친구 한 사람이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원고를 검토했습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낼 마음이 없었는데도 마지막 두 장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내용을 읽으면서 두 번이나 멈춰서 고개를 숙이고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 그리고 우리 무가치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렸습니다.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깨닫고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날은 내 친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정확히 1년 전 그는 호화로운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은 지금 우리가 있는 검소한 집과는 대조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 그를 둘러싸고 있는 아름다운 것들은 그에게 아무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살 의욕이 없을 정도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온갖 동물적인 충동에 탐닉하고 있었습니다. 코카인 복용 습관으로 그는 많은 재산을 썼습니다. “진정제”와 “각성제”, 브랜디와 위스키, 이 모든 것이 그의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갑부들과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 날 밤은 혼자였습니다. 그는 외로움 가운데 무섭고 두려운 세계의 상황을 생각하며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가 보기에는 아무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비장한 결심을 하고 권총에 실탄을 장전하여 관자놀이에 대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쳤습니다. “죽음과는 8분의 1인치 거리다. 그럼 내 고통이 영원히 사라진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바뀌었습니다(그것을 그 친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희망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 성경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텅 빈 집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용서와 자비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친구의 삶을 너무나도 급진적으로 변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위에서 설명한 사람과 전혀 닮은 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가 출생하기 전에 그의 부모님이 그를 위해 기도했고, 또 그 역시 젊었을 때 신학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풍요와 특권을 누리는 데 정신이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로 할 수 없는 방탕한 삶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념할 만한 밤이 있기 17년 전, 내 친구는 가족 표지로 된 아름다운 책을 샀습니다. 책은 아무 글도 쓰여 있지 않은 흰 종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책을 산 이유는 그 날부터 자신의 삶에 중요한 사건들을 모두 기록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7년간의 방탕하고 낭비스러운 생활 동안 거기에 적어 놓을 만한 사건은 하나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 친구가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살던 기간 동안 이상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비영적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가 매일 별점에 관심을 기울이고 록 음악과 록 콘서트에 탐닉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사고에 빠졌습니다. 요가에 매료된 그는 결국 힌두 철학을 깊이 공부하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동양의 마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그가 경험한 일 가운데 어느 하나도 그의 가족 노트에 실릴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노트는 공허함이라는 고통과 함께 텅 빈 채 남아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기념할 만한 저녁이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 날 밤 내 친구는 처음으로 노트에 기록을 했습니다. 나는 그가 쓴 것을 읽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은 사람의 거룩하고 엄숙한 설명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자비로 영적으로 소경이었던 그에게 찾아오셔서 진리와 사랑의 빛으로 그를 절망과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영적인 혼동 때문에—마치 내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하나님께서서는 성경이라고 불리는 책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유일하게 신빙성 있는 영적 안내자인 성경으로부터 등을 돌린다면 당신은 착각과 오류 속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기 위해 겸손히 배우려는 자세로 성경으로 돌아오면, 당신이 필요로 하는 영적인 빛과 안내문을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빛으로 인도받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우리의 발걸음은 그 말씀에 인도받으니,  
그 진리를 믿는 자는  
광명과 기쁨을 얻습니다.

## 생각해 볼 문제

1. 미래의 사건을 예언하는 데 있어서 성경과 그 정확성을 비견할 만한 어떤 다른 책이나 “종교 문서”가 있습니까?

2. 성경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삶이 변화된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3. 당신은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성경의 고유한 가르침을 과소 평가한 적은 없습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우리에게 닥친다 해도  
하나님에 관한 이 크나큰 문제와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고,  
도덕적인 존재인 우리는 그분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토저(A. W. Tozer)—

### 3

##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 아가면서 한번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말씀해 놓으신 것을 성경에서 읽기보다는 자신의 사색이나 공상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거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 1:26)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고”(롬 1:23) 있습니다. 이제까지 인간들이 생각해 낸 모든 “신들”은 전적으로 무기력하고 심지어는 기괴하기까지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총명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지식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고전 1:21). 만일 인간의 두뇌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기에는 너무 보잘것없는 분일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인간의 두뇌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영리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데 불리할 것입니다.

반대로 어느 누구에게나 영적 지혜는 사용 가능합니다. 이 영적 지혜는 아프리카의 꼬부랑 할머니에게도 대학 교수에게도 똑같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영적 지혜는 학문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영적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약 1:5).

이런 지혜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천국에 속한 것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세상 제도를 움직이는 통치자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2:8, 12).

성경은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는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당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적 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자신을 당신에게 보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행을 하면서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들과 장소에 깊은 영적 관심과 통찰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우리는 케냐의 밀림에서 한 무리의 아프리카 소년들을 만났습니



다. 그들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나누고 하나님에 관해 더 많이 배우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았습니다.

적도의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어느새 미끄러져 들어가고 바쁘고 긴 하루의 마지막을 알렸습니다. 나는 흙탕길 곁에 있는 바위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덤불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다 보았더니 한 아프리카 소년의 크고 검은 눈동자에 만월이 반사되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열살난 그 소년은 내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곧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다른 소년들도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이 곳 저 곳에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들의 성경 지식은 나를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얼굴을 보여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소년이 물었습니다. 나는 조엘이라는 그 소년의 질문에 깜짝 놀라서 대답 대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출 33:23)는 말씀을 하시기 전 모세가 무슨 기도를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야기해 주지” 하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모세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출 33:18)라고 기도했어요. 다시 말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알려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가 생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과 거룩함과 빛은 소멸하는 불과 같아서 하나님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출 33:20)고 주의를 주셔야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끌기 원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을 보여 주셨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조금만 더 보여 주셨더라면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 때문에 소멸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의 충만함을 모세에게 보여 주지 않으셨는데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있는 곳을 지나가실 때 모세를 반석 틈에 두어 보호하셔야 했어요”(출 33:22).

그 어린 친구는 적도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오의 빛나는 햇빛을 눈을 가리지 않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나방은 어두운 밤에 빛으로 모여든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방이 빛에 너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죽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빛에 과다 노출되었을 때의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자기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이해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예화를 하나 더 생각해 냈습니다. 그들은 자기 동생들을 꼭 싸서 사랑과 따스한 보살핌이 있는 엄마의 가슴에 꼭 붙어 있게 하는 아기 포대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지구를 감싸고 계시는 포대기(강보, 욥 38:9)에 대해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오존층이라고 부릅니다. 이 섬세한 산소 동소체 층은 해로운 자외선이 태양에서 지구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 줍니다. 물론 태양이 없으면 지구에서는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는 태양 에너지의 과다 노출로 인해 암이 생기는 결과를 막기 위해 보호막을 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포대기라는 단순한 말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심한 화상을 입지 않게 보호해 준다고 설명하자, 그 꼬마 친구들은 하나님의 포대기에 특별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나는 그들이 내

말을 모두 이해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잘 받아들였고 우리는 함께 귀한 기도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찾는 과정에서 누렸던 바로 그 보호를 개인적으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다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름이 항상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것은 이름의 뜻이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이름은 하나 하나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독특한 어떤 면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세 가지의 이름이 하나님께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입니다. 세 가지는 각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로힘은 제일 먼저 사용된 이름으로 거의 2천 번 이상 사용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엘로힘이라는 이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중요성과 의미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 이상을 표현하기 원할 때는 복수형을 씁니다. 그리고 단 하나만을 가리킬 때는 단수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는 더욱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는 두 개를 가리킬 때는 양수(兩數)를 사용하고 셋 이상을 나타낼 때는 복수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양수와 복수 사이의 차이("2"와 "3 이상" 사이의 차이)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최초의 이름인 엘로힘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엘로힘은 단수도 양수도 아닙니다.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복수 즉, 셋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엘로힘은 다른 보다 작은 이름들이 결합된 것입니다. 그중 하나는 “엘”로 아랍어 “알라”와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입니다. 엘은 분명히 단수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에 대한 다른 설명—“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니”(신 6:4)—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첫 구절—이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에서 우리는 하나 안에 셋이며 셋 안에 하나이신 하나님 개념을 소개받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 이 삼자 연합체를 때로는 삼위 일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이 삼자 연합체라는 최초의 암시를 읽은 후 몇 구절 더 읽게 되면 인간 창조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삼자 연합체 하나님의 개념이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 1:26). “우리의”와 “우리가”가 복수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27)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한 분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하나”와 “둘 이상”이 나오지만 모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미 엘로힘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온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셨습니다(고전 2:12).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러한 초기의 암시에서부터 시작하

여 하나님은 점차적으로 자신의 신비한 삼자 연합체와 영원한 영광을 더욱 많이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하나 안에 셋이며 셋 안에 하나 되시는 이런 면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조금씩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어느 정도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경 나머지 부분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며 동시에 성자 하나님이시고 또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신 분을 소개받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자기를 유일하게 한 분인 하나님으로 나타내십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그런 개념을 어렵듯이 짐작이나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인간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서 자기를 인간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빛과 거룩하심은 모세의 눈에 완전히 드러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로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통해 인간이 견딜 만큼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고후 4:6).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요 1:14)라고 선언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후에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었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만난 분이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명명 백백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요일 1:1). 이런 요한의 기록은 비인격적 이론이 아니라, 자신과 살아 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문에 대비해 요한은 곧 그 대답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요일 1:4). 이 책이 당신의 손에 들려지게 된 것도 당신 역시 기쁨이 충만하기를 열망하는 한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빛이 어두운 밤에 사람을 끌어들이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도 사람을 하나님께로 끌어들이십니다. 지금도 당신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싶으면 모세처럼 “주의 영광을 보여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 생각해 볼 문제

1. 당신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추구하면서 성경을 깊이 있게 읽어 본 적이 있습니까?

2. 당신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자신을 보여 달라고 간구합니까?

다음과 같은 기도를 제안합니다: “오, 하나님. 이 우주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 주시옵소서!”

3. 당신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면, 그분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알 수 있는 당신의 능력보다 더 크셔야만 하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보다 크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고대의 모든 영웅들은 남자였으며

나 역시 남자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분과 같지는 않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이상이셨다.

—니콜레옹—



## 4

# 사람을 진정으로 구별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세계는 지구촌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나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적대적이기 때문에 이 “지구촌”은 갈수록 살기 위험한 장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 학생들까지도 새로운 위험이 자기들을 위협하고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인류를 분리시키는 문제가 정치, 경제, 국가, 산업 전반에 걸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은 갈수록 심하게 분열되고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분리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표면적 이유들을 간단히 살펴본 다음, 보다 덜 눈에 띄지만 분열의 주된 원인이 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 표면적 분리

정치: 정치가들은 서로 두려워하고 불신합니다. 그들은 타협이

불가능한 견해가 대두될 때는 군사력이 자기들 나라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한편 양식 있는 시민들은 평화와 핵무장 해제를 위해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TV에서 이런 “평화”를 위한 시위를 볼 때 우리들은 그 속에서 전쟁의 원인이 되는 바로 그 열정 같은 것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경제:** 가뭄, 기근, 기아, 지진 등과 같은 자연 재해는 늘 대두되는 문제입니다만 제3세계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재난들은 빈국과 부국 사이의 경제적 격차로 인한 고통에 가중되어 나타납니다. 이들을 도우려고 애쓰는 많은 사람들의 선의와 희생에도 불구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국내 상황:** 오늘날 이혼과 가정 파괴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비밀이 아닙니다. 렛소울(Letsoale)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집은 깨졌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그의 집이 무너졌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만 곧 자기 아내가 자기를 떠나갔다고 말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집들”이 깨어져 있습니다. 이기적인 생활은 진정한 사랑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장에서 볼 수 있겠지만 자기들의 결혼 생활을 항구적인 결합으로 고정시키기 원하는 부부는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 직장에서 우리는 불만과 긴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1985년 초, 영국에서 일어난 20세기 최대의 산업 분쟁이 종결지어졌습니다. 하지만 파업과 격렬한 거리 대치는 끝났다 해도 증오와 적개심은 아직도 노사 관계와 광산업계에 내에 공공연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1904년 산업 소요 이후 웨일스(Wales) 탄광에서 보여 주었던 노사 대립에 대한 해결책과는

전혀 다릅니다. 존 패리(John Parry)는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내가 처음 존을 만났을 때 그는 91세의 은퇴한 광부로 시력을 완전히 잃고 또 “광부병”이라 불리는 만성 폐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나와 아내는 시간만 나면 북 웨일스에 있는 그의 허름한 광부 막사를 찾아갔습니다.

존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웃음으로, 1904년과 1905년 대부흥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죄를 깨우치게 하시고 능력을 부여 주심으로 웨일스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 주었습니다. 그 때는 광산 경영주와 광부들이 모두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로 인해 나타난 결과는 동역 의식과 상호 신뢰 및 존경이었습니다. 1905년과 1985년 사건이 얼마나 다르니까?

존은 그 당시를 회상하며 기쁨에 넘쳐 이야기했습니다. 그 때는 술을 마시는 사람이 갑자기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많은 술집들이 없어졌다고 회고했습니다. 또 그는 다른 광부들과 함께 갱으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함께 불렀다고 했습니다. 존은 호탕하게 웃으면서 “지금도 사람들이 나를 보러 와서는 그 부흥이 어디 갔냐고 묻곤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그 부흥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대답합니다”라고 가슴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 진정한 분리

이러한 분리가 심각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영구적으로 인류를 나눠 놓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나

라들의 평온을 이내 파괴하려 위협하는 위험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혼란된 이해 때문에 결국은 둘로 양극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을 인류에게 나타내시면서 자신의 신적 존재에 관한 진리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 큰 빛을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사 9:2).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빛이 어떻게 나타나실 것인가에 관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사 9:6)라고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한 아기가 날 것이라고만 말씀하셨다면 이 말에는 아무 특별한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기는 항상 태어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면 한 아기가 날 것이라는 기록은 전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때는 예언이었던 것이 지금은 역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날 것이라고 한 것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지상에 한 아기가 태어났고, 천국으로부터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아기가 태어나고 한 아들을 주시는 것을 통해 흑암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오늘까지도 이 빛은 흑암과 의심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눈이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출생을 구별짓고 그를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의 출생이 어떤 기적적인 “표”로 증명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 7:

14).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임마누엘이란 말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담고 있는 뜻을 통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종교는 신계로 도달하려는 인간의 노력에 대한 기록인데 반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오신 방법에 대한 기록입니다.

한 처녀가 잉태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구에 거점을 확보하셨습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시공간의 일부가 되신 날은 이제 역사상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마 1:20).

그 후 예수님이 태어나 성장하여 성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적대감을 갖고 의심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요 10:30)는 말씀으로 자신의 신성을 주장하셨습니다.

아폴로 15호 우주비행사 짐 어윈(Jim Irwin)은 “지구 위를 걸으신 하나님이 달 위를 걸은 인간보다 더 중요하다”고 썼습니다. 분명히 인간이 우주에서 성취한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영원을 떠나 시간 속에 발을 디딘 그 순간의 기적과는 비교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아이가 나고 한 아들을 주신다는 예언이 있고 난 후에 이 독특한 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예언이 뒤따랐습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사 9:6-7). 세상을 성공적으로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는 반드시 권능과 목적이 이렇게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 세계에서든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지식뿐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지도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지만, 역사상 어느 지도자도 영원한 평화 상태를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겸비하지 못했습니다.

평강의 왕께서는 이 세상에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줄 지혜와 능력을 겸비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예수님은 이 지구를 통치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군수 공장이 문을 닫고 모든 핵 폭탄이 해체될 것이며 모든 군인들이 영원히 귀가할 것입니다!

인간은 인류를 통치하기에는 너무나 부적합하다고 이미 판명이 났습니다. 평화와 정의는 평화의 왕께서 우주 왕국을 통치하실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사 2:4). 그 평화의 날이 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합 2:14). 영원한 하나님을 만족케 할 역사의 결론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오기 전에 사람들 사이에 깊고 절실한 분리가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장차 있을 이 분열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그가 이곳에 계실 때 당신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확실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와 요한복음은 시작 부분이 비슷합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로 시작되고 요한복

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요 1:1)로 시작됩니다. 창세기에서 엘로힘으로 불리신 하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라고 불리십니다. 엘로힘이 말씀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지은 피조물들 가운데 다니시기 위해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요 1:14). 이 엄청난 기사의 전문은 이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 1:1-3, 10-12, 14, 18).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빌립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예수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요 14:8)라고 특별히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요 14:9)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 엄청난 대답으로 보아 예수님은 바보나 사

기꾼 아니면 하나님 셋 중에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보나 사기꾼이라고 진지하게 비난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세계 역사상 최대의 사기꾼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바로 여기가 사람들을 갈라놓는 분기점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요 10:30)고 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이 찾던 하나님이라는 해답을 얻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비천하게 낮추실 수 없다고 생각하여 그 말에 적개심을 갖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이것은 놀랄 일이 못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은 끌어당기셨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멀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도 사람들을 구별지어 놓으셨지만 분명하게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마 12:3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처음의 반응을 영원히 견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하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유대인 랍비로 아주 재미있는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심히 미워하여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는 데 찬성했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후에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과 주인으로 섬기는 데 여생을 바쳤습니다. 결국 그는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 때문에 극심한 고난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큰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빛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사울은 얼마 동안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는 직관적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사용해서 “주여 뉘시오니까”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행 9:5)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날 사울은 비로소 여호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 계시로 인해 사울은 예수님의 원수에서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그는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바쳤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믿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이 그로 하여금 사상 최고의 선교사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의 서신서들은 만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고 또 그를 위해 존재한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골 1:16).

따라서 나사렛 예수는 이슬람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한 선지자도 아니요, 모르몬교나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여러 아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 주신 계시를 무시해 버립니다. 이것은 “혼합주의”라는 것으로 그 사전적 정의는 “서로 다른 신앙들을 결합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예를 들어 힌두교에서는 “예수”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섬기는 다른 많은 신들과 같은 한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참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이신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바알의 우상들과 대적하셨을 때 그들을 완벽하게 굴복시키셨던 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만들었거나 사람이 생각해 낸 신들

은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어 엎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하나이십니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 그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권세와 영광 중에 지상으로 재림하실 일 등을 믿는 데에는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우주와 그 모든 법과 생명을 유지하는 장치를 창조하신 분이시므로 자신이 창조한 모든 법을 초월하십니다.

세상은 나사렛 예수를 중심으로 크게 두 부류로 나뉘집니다. 이것은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도 아니요, 이혼한 부부도 아니요,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진 나라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만들어진 이 구별은 인류를 나뉘어 놓는 다른 모든 문제들보다 훨씬 더 근본적입니다.

이 말은 사실을 과장한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음이니라”(요 8: 42-44).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신자들의 형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마귀를 아버지라 여기는 사람들의 형제 관계도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거나 사탄의 가족, 이 둘은 당신과 내가 영원히 선택해야 할 사항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이 아무리 진지하다 할지라도 잘못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지하기만 하면 무엇을 믿든지 상관없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독약을 먹으면서 그것이 약이라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죽습니다!

인류는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거나 마귀의 가족입니다. 당신이 어느 가족에 소속되어 있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첫단계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마 1:21)고 말했습니다.

## 생각해 볼 문제

1. 진지하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당신이 믿고 있는 바가 당신에게 정말로 중요합니까?

2. 사람들이 서로 구별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치, 경제, 국가 혹은 산업상의 이유 때문입니까?  
영적이며 영원에 관한 이유 때문입니까?

3. 예수님이 묘사하신 두 부류의 가족 중에 당신은 어느 가족에 속하고 싶습니까?

도덕적인 악을 깊이 인식할 때,  
아마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지혜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살아 있게 되는 것 같다.  
-아놀드 박사(Dr. Arnold)-

## 5

### 무엇이 진정한 문제입니까?

20세기초 많은 사람들은 이 세계의 미래에 대해 아주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세계가 평화와 번영의 황금기로 들어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새 시대의 혜택이 모든 나라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절망과 질병과 극심한 빈곤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914년 전쟁의 사이렌이 유럽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은 20세기에 이루어진 엄청난 과학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밝은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전세계 핵무기의 대량 확산 능력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가 뒤엉켜 있는 현실을 보는 수많은 사려 깊은 관찰자들은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시기에 살고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분리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문명 사회의 근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어서 그럴까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세계의 저명한 지도자들이 모여

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서로의 논리와 제안들을 청취했습니다. 그러다가 세계의 문제는 이 위기에서 저 위기로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에너지와 경비, 그리고 전문 지식이 동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탁월한 정치가와 관료, 뛰어난 과학자와 학자, 지혜로운 실업가와 은행가, 존경받는 의사와 사회학자, 모두 다 그들의 전문 지식으로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박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진정한 문제라고 선포하신 것을 거의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성경을 조금만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었다라면 수많은 이 전문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본 문제가 먼저 확인된 후에야 해결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우리의 진정한 문제를 인식시켜 주십니다. 여기에 이르면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그저 종교적 호기심만 가진 사람이 구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류가 창조된 이후 최초의 질서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 1:26)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당신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까?”라고 물을 것입니다. 분명히 신체적인 닮음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요 4:24)라고 하신 걸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팔과 다리와 눈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딤후 1:16)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사

람들에게는 그들의 몸보다 더 귀한 무엇이 있다는 뜻입니다. 몸이 사라져도 참 그 사람은 계속 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 정, 의를 가지고 계심을 보여 줍니다. 사람도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능과 감정과 의지가 무한, 다시 말해서 한정이 없으십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저 유명한 아인슈타인도 지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한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의 의지도 우주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운명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자기의 앞날을 마음대로 끌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이 영, 혼, 몸으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살전 5:23). 인간은 그의 영을 통하여 자신의 창조주와 무한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또 그의 몸과 혼을 통하여 물질 세계와 관계를 맺습니다.

영이 첫째이고 혼이 둘째이며 몸이 셋째인 이상, 모든 것이 잘 되어 나갑니다.

그러나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우선 순위 1번이고 혼이 2번이며 영이 3번인 것입니다. 오늘날 신체적, 물질적, 관능적 관심들이 생각과 결정과 애정을 지배합니다. 반면 영적인 능력은 잠들어 있거나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창조한 인간을 풍성하게 하시고 다스리시지만, 그릇된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 사이에 의사 소통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거부당하고 무시당하십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고 비실제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완전히 살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모두 사람의 의지에서 발단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다른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꼭두각시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인형을 조종하는 사람은 실을 당기고 늘어뜨림으로써 인형의 모든 동작을 조종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의지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내린 결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이것은 성경 진리를 무시하는 정신과 의사들에게서는 듣기 힘든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두 종류의 특별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창 2:9).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뜻을 존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순종 혹은 불순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자유 의지를 부여하셨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을 선택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선택권은 그들만의 것이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인 사탄은 그의 설득력을 동원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릇된 선택을 하도록 유혹했습니다. 사탄은 그들이 금지된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암시함으로써 선악과를 탐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신이 될 수 있다고 암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결코 그 이하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이 인간도 인간으로 결코 그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피어서 그들의 의지를 하나

님의 의지에 거슬러 행사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인간은 창조주와의 생명력 있고 개인적이며 절친한 교제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모두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 5:12).

인류 역사상 모든 묘지와 병원과 군대와 감옥은 창세 초에 인간이 내린 그릇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인류에게 있는 이 치명적인 악은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선천성 질병입니다. 죄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단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과도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당신과 나는 타고난 죄인일 뿐 아니라 후천적 죄인도 됩니다.

우리의 출생에 대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시 51:5).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구실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니”(엡 2:2-3).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아내나 친구나 부모 그 어느 누구도 우리 대신 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분열과 적대감이 그토록 많은 참 이유는 죄가 우리 모두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무신론자와 신자를 그리고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을 결박합니다. 죄는 제3세계 사람들

과 선진 공업국 사람들을 결박합니다. 죄는 공산주의자와 자본주의자를, 경찰과 범죄자를, 여성 해방론자와 남성 우월주의자를 결박합니다. 창녀나 목사,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자나 빈곤의 구덩이에서 허덕이는 자, 학식 많은 자나 무식한 자 등,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롬 3:23). 이처럼 죄는 인류에게 존재하는 모든 긴장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마 9:13)고 하셨습니다. “죄”라는 말은 “표적을 빗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표적을 조금 또는 많이 빗맞혔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교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거나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헛된 희망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엡 2:9)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마 9:13)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로 이해하게 되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심하게 하는 사람들도 큰 안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엡 2:4)이시기 때문에 그가 요구하시는 것은 구원을 값 없이 주는 선물로 받으라는 것뿐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 2:8). 예수님은 친히 최고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사람들이 거저 따먹을 수 있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당신을 강제로 먹게 만들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긴급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라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후 6:2)라고 하십니다. 당신 스스로 당신의 삶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한 후인 미래의 어느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마 9:13)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진정한 문제—죄 문제—에 대해 솔직한 것이 해결을 향한 첫단계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태에 있든, 어느 나라에 있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팔은 오늘 당신을 받아들이기 위해 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듣기 원하시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눅 18:13)라는 고백입니다.

## 생각해 볼 문제

1. 당신은 오늘날의 사회가 뭔가 비극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까?

2. 당신이 병이 났을 때, 의사가 처방전을 내리기 전에 먼저 올바르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까?

3. 성경은 당신의 문제를 어떻게 진단합니까?  
성경은 당신에게 어떠한 처방을 내립니까?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의사 누가(복음 전도자)—

## 6

### 왜 사람들은 그릇된 길에 빠집니까?

어렸을 때 나는 적군 폭격기들이 계속 날아다니는 영국 제도의 한 섬에서 살았습니다. 그 때는 전시였기 때문에 이 폭격기들은 영국 중부와 북부 지방의 공격 지점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친구와 나는 적기의 소리와 아군 전투기의 굉음을 구분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하늘에 있는 적기들을 비추는 것을 보면 우리는 크게 흥분했습니다. 우리는 땅의 대공포나 공중의 “공중전”으로 인해 폭격기가 추락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적기가 추락을 하는 경우 승무원들이 낙하산을 타고 탈출할 가능성이 늘 있었습니다. 군 당국에서는 생존자들이 길을 찾지 못하게 하려고 길에 있는 표지판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다시 폭탄을 싣고 비행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의 도로 표지판이 거의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년들은 교외의 어느 작은 교차로에 도로 표지판이 하나 남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 표지판을 돌려

서 다른 방향을 가리키게 해 놓고는 전쟁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우리도 당국 사람들처럼 우리 땅에 착륙한 불청객들을 혼란에 빠뜨리기 원했던 것입니다.

물론 손에 믿을 만한 지도가 있으면 표지판이 없는 것쯤이야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로 표지판을 돌려 놓는 우리의 유치한 생각들도 적군이 자기가 가진 지도의 정보를 무시하지 않는 한 아무 혼란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을 찾는 중에 그릇된 표지판에 의하여 잘못된 길로 안내받는 사람들에게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이 신비한 우주의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롬 1:22, 28). 상실한 마음은 피조물을 숭배합니다. 반면에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창조주를 숭배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부패한 마음 가운데 내어 버려두셔서 우주가 생성된 방법에 관한 이상한 사상들을 믿게 하실 것입니다. 상실한 마음은 기만당한 마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거짓된 길, 즉 멸망으로 이르는 길을 따라가게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위험한 위치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희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살후 2:10-11). 일단 진리를 무시하거



나 거부하면 그는 그릇된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는 런던의 짙은 안개를 헤치고 집으로 가는 길을 찾으려 하던 일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길 가장자리를 찾는 데만도 가능한 모든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손전등 불빛도 한 팔 거리밖에 비춰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신의 안개와 같은 강력한 기만(欺瞞)이 지구의 마지막이 되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마 24:3).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마 24:24).

지금도 당신은 “글쎄, 나는 속고 있지 않은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당신은 쉽게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 그 결론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하여금 당신의 마음을 속이도록 허락하셨다면, 당신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거짓 선지자가 당신을 속였다는 것을 실제로 당신이 알기만 해도 당신은 진정으로 미혹에 빠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기만은 마음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지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진리를 거부하고 그 대신 세상이 가르치는 거짓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 유형은 지적으로 교만하여 남의 도움이 필요없는 것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한 유형은 도덕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심으

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사람은 주 예수께서 특별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 7:17).

당신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당신에게 믿어야 할 것과 믿지 말아야 할 것,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과 행하지 않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자칭 종교 교사들은 당신이 그릇된 것을 믿고 행하게 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이 세대에 와서는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사탄의 대리자들 가운데 일부가 사이비 기독교 단체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셋 안에 하나, 하나 안에 셋—에 관한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 이곳 저곳에서 적당한 말씀들을 끌어 와 인용할지 모르지만, 결국 본문을 그 맥락으로부터 유리시켜 전혀 비성경적인 종교를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라는 질문을 그들에게 함으로써 거짓 교사를 찾아 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의 일부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서로 서로 돕는 동지애가 무척 강한 비밀 단체들도 영적인 사기 집단으로 보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집단에서는 하나님을 부를지 모르지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냉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

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약 2:19).\*

오늘날에는 성경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종교들의 활동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힌두교의 여러 종파들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추종자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때 기독교 국가로 알려진 나라에도 초월 명상 형태 또는 요가와 금욕 등과 같은 동양 신비주의 형태로 힌두교 철학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힌두교에서 파생한 이단 종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피조물을 신으로 여겨 많은 신들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

\* 프리메이슨단은 현재 6백만의 회원을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적인 비밀 단체이다. “형제애, 평안, 진리”라는 그 원리는 많은 사람들을 혹하게 하지만, 메이슨단은 초심자들이 겉으로 보게 되는 모습처럼 해가 없는 단체가 아니다. 메이슨단이 되면 모든 회원들은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으며 빛을 찾아 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만 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신이 이미 빛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믿는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 8:12)고 말씀하셨다.

메이슨 비밀 단체의 입단식은 매우 극적이며 상징들로 가득 차 있다. 그 때, 메이슨의 회원들은 “가우토”(Gauto)라는 이름을 소개받게 되고 성경적인 하나님의 개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회원들은 “가우토”란 “우주의 위대한 건축자”이며 “하나님의 잃어버린 이름”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이론적으로 불교도이든, 힌두교도이든, 이슬람교도이든, 유대교도이든 그리스도인이든간에 하나님을 믿으면 프리메이슨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우토(인간이 만들어 낸 하나님에 대한 개념)는 회원들의 생각을 성경이 참빛이라(요 1:9)고 선언한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 왜곡되게 만든다.

그 다음, 메이슨 회원들이 동료 “기술자(craft member)”가 되면, “야불론”(JAHBULON)이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게 된다. “야”는 “야훼”에서 따 왔고 “불” (“바알”의 한 형태)과 “온”은 이집트의 태양신을 의미한다. 그리고 의심없는 “대가(Master Mason)”가 되면 그 신비주의적인 이름이 실제로 유대와 중동의 하나님 이름을 조합시켜 놓은 것임을 듣게 된다. 이것은 서로 다른 믿음을 조합시키려는 고전적인 통합주의의 한 예이다. 예수님은 친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마 6:23)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슬람 세계도 그들의 믿음을 전파하는 데 굉장한 열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일 달러와 정치 권력의 증가로 인해서 그들은 수년 전만 해도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었던 규모로 자신들의 세력권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바위 사원”(the Dome of the Rock)이라고 불리는 그들 최고의 “거룩한 신전”에서 그들은 대담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을 부정합니다. 그 신전 주변에 아랍 말로 쓰여진 글들을 보면 “하나님은 태어나지 않는다. 또한 자녀를 낳지도 않는다”(God is not begotten, neither can He bege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His only begotten Son)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고 되어 있습니다.

종교 세계에만 기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세상도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며 사회의 최고 목표는 인간의 발전이라는 인본주의 철학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학, 신문, 대중 잡지 그리고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 인본주의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은 광고계에서 인기 있는 테마입니다.

인본주의는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새로 대두된 철학이 아닙니다. 바울이 살아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롬 1:25). 주님께서서는 인본주의자들을 무안하게 만드는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욥 38:4). 이것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찾아와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창 3:5).

오늘날도 사탄은 세속 인본주의라는 기만적 가르침을 통해 그의 추잡한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정치계나 종교계에 도취하지 않은 현대의 젊은이일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정치가는 의심스러운 존재이고 종교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입니다. 당신은 차라리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고 다른 곳에서 개인적 성취감을 찾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펑크록”(punk rock)이나 “뉴 웨이브 음악”(new wave music)의 가사 등에 나오는 생활이 당신이 처해 있는 고독한 세계로부터 피할 곳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당신은 당신이 듣고 맞추어 춤추고 있는 노래의 가사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사탄 숭배와 사디즘(sadism, 변태 성욕)과 섹스가 결합된 것이라는 사실에 동의할 것입니다. 무의미한 삶에 대한 매력적인 대안으로 지옥의 공포가 심심찮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가끔씩 열광적인 폭력에 도달하는 분위기 가운데서, 이 젊은이들이 뭉치는 깃발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과 서로서로를 파괴하도록 부추깁니다.

내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보았던 한 곳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곳은 “냉동고”라고 불리는 시체 안치소였습니다. 그곳에는 600여 구의 시체가 3개월 동안 안치되어 있었는데 그중 대부분은 젊은이들의 시체였습니다. 그것은 연고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시체의 발가락에는 “신원 불명”이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결국 신원이 파악되지 못하고 빈민 묘지에 묻힌다고 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마약을 복용하고 디스코 음악에 나오는 메시지대로 움직이고 레코드 플레이어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릇된 표지판을 따라 왔었습니다. 이제 막다른 길에 와서 길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고 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혼란 외에도 소위 “마술”(black arts)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빙성 있는 출처에 의하면 현재 사이비 종교에 대한 관심은 중세 암흑기 때 이상으로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소위 현대의 “과학적 개화”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있을 법하지 않은 곳에서 사탄 숭배자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런던 시의 전문직 종사자들은 켄징턴(Kensington)에 모여 “악마의 미사”를 드립니다. 마녀의 모임들이 아름다운 밴쿠버 섬은 물론 유럽에서도 번창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조상 숭배 의식은 심령술을 통한 영과의 대화로 전세계에 퍼져 가고 있습니다. “던전스 앤드 드래건스”(Dungeons and Dragons)와 “위저 보드”(Ouija Board) 등과 같은 갖가지 실내 게임들이 악과 초자연적인 것에 매력을 느끼는 이 문명화된 세계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번창 현상은 피상적인 영적 호기심의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것에 그릇된 인도를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돌아설 뿐만 아니라 거짓되고 헛된 영적 만족을 얻기 위해 사교의 암흑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가 여전히 문명 세계라고 부르고 있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잘 기

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표적과 기적들이 말세의 대미혹기에 수반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거짓의 대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악한 행위는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살후 2:9-10) 임할 것입니다.

거짓 교훈과 악한 행위에 대한 관심이 이처럼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많은 나라들과 사회들이 무신론과 헛된 복종과 절망의 억압하는 힘에 눌리게 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 아닙니다. 사탄의 표지판은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중 어느 하나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지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침울함과 혼동과 사망의 메시지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희망과 확신과 생동력 있는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 성경을 읽으면 성령께서는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일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 14: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잘못 인도받지 않게 하려고 거짓 표지판에 대해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당신의 생각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속임수가 증가할 것에 대해서도 알려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렘 29: 11-14).



## 생각해 볼 문제

1. 어떤 종류의 생각들이 피조물을 창조자보다 더 경배하려 합니까?(롬 1:22-28 참고)

2. 하나님을 알기 위해 추구하면서 당신이 갖게 되는 지적인 의문을 풀어 주는 열쇠는 무엇입니까?(요 7:17 참고)

당신의 생각입니까?

당신의 의지입니까?

3.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자신에게로 인도하는 명확한 지표를 주셨습니까?(요 8:12 참고)

여러 해 전에 영국의 어느 주일 학교에서 한 사내 아이가  
“하나님께서서는 말썽꾸러기 아이도 사랑하시나요?” 하고 선생님에게  
물었다. “아니, 절대로 사랑하지 않으셔.” 선생님이 대답했다.

오, 무심결에 아이에게 던진 그 말은 신성 모독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썽꾸러기 아이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결코 나도 사랑하시지 않을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말했다. “뭔가가 변해 버렸다고 해서

변하는 사랑이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캠벨 물건—

## 7

#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당**신은 당신에게 매우 소중한 어떤 사람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상대방이 당신의 사랑을 믿지 않을 때 사랑을 증명해 보이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든, 참사랑이란 때로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더 잘 표현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행동은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당신이 이 일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한 다른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직후, 나는 한 어린 나팔수 소년과 군인에 관한 실화를 읽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다 보어(Boer) 전쟁 때 군대에 있었습니다. 윌리 홀트라는 12세의 나팔수 소년은 7명의 무신론자 군인들과 한 막사에 배치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과는 달리 소년 윌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경건한 신자였습니다. 매일밤, 윌리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윌리가 그럴 때마다, 나머지 군인들은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어느 날 연대장이 연대를 정열시켰습니다. 윌리와 빌이 소속된 막사에 도둑이 있다는 정보가 입수된 것이었습니다. 연대장은 황급히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 전연대에 최후 통첩을 하였습니다. 연대장이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했던 경고가 아무 효력이 없었다. 도난 사건이 또 발생했다. 오늘, 범인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 자수하고 인간다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만일 자수하지 않으면 연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채찍을 10회씩 가하는 처벌을 내리겠다. 그러나 만일 제군들 중 한 사람이 처벌을 받기 위해 나오면, 나머지는 벌을 면제받게 될 것이다.”

긴장 속에 침묵이 흐른 뒤, 윌리가 일어나 차렷 자세를 취한 뒤,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소년은 말했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나와 벌을 받고 나머지는 벌을 면제받는다면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연대장은 화가 나서 연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제군들은 어떻게 이 죄 없는 아이가 제군들이 받아야 할 처벌을 대신 받도록 보고만 있는가?” 아무도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연대장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죄 없는 소년이 죄인 대신 처벌받는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연대장은 자기가 한 말대로 윌리의 웃웃을 벗기게 하고 잔인한 채찍질을 시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가혹한 채찍질로 윌리가 정신을 잃어 가자 빌이 그 광경을 더 이상 지켜보지 못하고 뛰쳐나와 말했습니다. “그만! 내가 범인입니다. 내가 처벌을 받겠습니다.” 정신을 잃었던 윌리가 깨어나서 빌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빌. 연대장님은 말씀을 번복하지 않을 거예요. 당

신이 받아야 할 벌은 내가 다 받았어요.” 참으로 그랬던 것입니다.

어린 율리는 채찍을 맞은 후, 다시 몸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율리가 천국으로 가기 전에, 비탄에 빠진 벌은 율리의 침대 곁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율리, 왜 그랬어? 왜 날 위해 그런 일을 했지? 난 그런 호의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놈이야.” 율리의 대답은 간단하고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빌,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 번 이야기해 주려고 했었지만 당신은 언제나 비웃었죠.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벌을 받으면 예수님이 당신 대신 십자가로 가실 때 그리고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실 때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당신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율리가 천국으로 가기 전에 벌은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거저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은, 잃어버린 인류를 성공적으로 구원하는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과 고통의 사역을 가능케 한 것은 사랑,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 갖고 계신 사랑이었습니다.

끌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 중 두 개의 십자가에서는 강도가 처형당했습니다. 이 두 명의 범죄자들 사이에서 주 예수께서는 못박히고 돌아가셨습니다.

무시무시한 마지막 고통의 시간 중에 한 명의 강도가 이 세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사법 체계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대담하게 말합니다. 놀랍게도 그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은 고통스럽게 고문받는 자신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그는 어떻게 로마의 재판관들이 무례하게 예수님을 자신들과 똑같이 사형

에 처하게 되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것은 부당한 것이었기에 그를 괴롭혔습니다. 죽어 가는 그 강도는 명석하고 겸손하게 최후의 순간이 다가올 때까지 세 가지의 통찰력 있는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 짧고도 겸허한 말 속에서, 죽어 가던 강도는 자기 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고백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죄책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둘째 : 이에 당연하거니와. 하찮은 좀도둑에서부터 폭력적인 강도짓까지 만연해 있는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이러한 범죄들이 일세기에는 그토록 심각하게 조명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 마디의 짧은 말 속에서, 죽어 가던 강도는 자신의 날에, 사형 선고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형당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셋째 :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 강도가 어떻게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고, 어떻게 법체계의 정당함을 받아들였는지를 보는 것도 놀랍지만, 그가 자기 옆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 나타낸 관심은 한층 더 놀랍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은 그 강도가 보기에 죄가 없고, 그러므로 그분에게 사형 선고는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희망을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39-43).

그날, 죽어 가던 그 강도는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죄

인들과 마찬가지로 영생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적당한 사람—주 예수 그리스도—을 의지했고, 적당한 장소—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서 그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경외스러운 날, 죽어 가던 강도 중 한 사람의 눈에는 주 예수님이 진실로 “무죄한” 분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두 명의 제자는 자신의 기록 속에서 그보다 한층 더 명확한 진술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두 제자 모두 예수님의 죄 없으심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증거를 기록했습니다.

베드로는 주 예수님의 가까운 친구로서 급한 성격을 가진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증거할 때, 그는 자신의 그런 성격대로 행동의 관점에서 말합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오”(벧전 2:22).

요한 역시 주 예수님과 매우 각별한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주님이 군중들의 비판적인 시각에서 떠나 계실 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이런 유리한 입장에서 요한은 “그(주 예수)에게는 죄가 없느니라”(요일 3:5)고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한편 바울은, 매우 특별한 명성을 갖고 있는 학자였습니다. 바울이 학식과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 예수님에 대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고후 5:21)라고 선언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에 대한 이러한 3자의 진실한 증거는 가장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혹자는 이러한 통찰력 있는 진술을 거부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하, 죽어 가던 강도나 베드로, 요한, 바울 같은 사도들도 객관적인 증인은 될 수 없는 거지요. 죽어

가던 강도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사도들이야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 아닙니까?”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분명코 그는 그리스도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를 갖고 날조한 거짓 사실로 예수님을 고소했던 고소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눅 23:14).

그렇지만 이 모든 인간들의 증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하늘 보좌에서 선언하시는 말씀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할 때, 먼저 타당하고 적절한 말로 그 사람이 정중하게 소개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각별하게 소개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맑은 음성을 내시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 3:17)고 선포하셨습니다.

성부께서는 예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사실 동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며 살게 하신 그 방법대로 살 것을 아셨습니다. 모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롬 3:23).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실 때 그분을 소개한 분은 그의 “거룩하신 아버지”(요 17:11)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가는 길을 기뻐하신다고 하신 분도 그의 거룩하신 아버지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설명했듯이 주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겸손히 낮추셔서 동



정녀의 몸을 통해 태어나시고 인간의 형상을 입으셨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인간이신 예수께서 그의 하늘 아버지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버지께 순전한 기쁨을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순례길을 가는 동안 예수님은 언제나 그의 아버지께 순종하고 의지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의 인성(人性)은 그의 하늘 아버지의 거룩과 사랑과 목적하신 바가 세상에서 표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바로 그가 하나님으로서 창조하셨던 그 별 위를 걸으셨습니다.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33년간 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살기를 의도하셨던 그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떠하도록 만드신 그 모습에 역행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속에 완전한 사람으로 사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실 때 기뻐하셨습니다.

무죄함! 죄 없으심! 완전하심! 죽어 가던 강도와 본디오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님은 무죄였습니다. 베드로, 요한, 바울이 보기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기에 예수님은 완벽하셨습니다. 무죄함! 죄 없으심! 완전함!—그리고 그 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첫번째 “수난일”의 끔찍한 사건을 목격한 군중들 중에 당신이 끼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군중들은 십자가 주위에서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광경을 바라보며 그들은 그와 대조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양쪽 옆에는 범죄자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둘 다 자신의 동족들에게 그리고 둘 다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

했습니다. 그들에게 사형은 그 나라 법이 요구하는 처벌이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강도들과 생생한 대조를 이루며, 예수님은 동족들에 대해 무죄하고 죄 없으며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완전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고후 5:19)께서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같이 십자가로 가셨습니다(벧전 1:19).

죄 있는 인간의 죽음을 대신한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자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강도들은 죽어야 했지만 주 예수님은 분명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요 10:17-18).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랑이 곧 미치게 될 범위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 15:1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그리스도)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후 5:19, 21)고 강조한 것은 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였습니다. 불순종으로 죄인이 되었던 아담과는 반대로, 예수님은 희생적인 순종으로 “죄가 되셨습니다.”

수백 년 후, 우리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놀라운 진리는 다음과 같은 의미 심장한 글로써 표현되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의,  
 나는 주님의 죄.  
 주님은 내 것이었던 것을 취하셨고  
 나는 주님의 것이었던 것을 받았네.  
 주님은 주님이 아니었던 것이 되셨다네,  
 나로 하여금 내가 아니었던 것이 될 수 있게 하시려고.

### 한 알의 밀알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강하게 인식하시면서 주 예수님은 입을 열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이렇게 온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을 보시고 그의 아버지는 의기 양양하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요 12:27-28).

이제 당신은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십자가의 광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그렇다면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었던 대화 가운데서 핵심 구절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는 방금 전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가르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

그렇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셨기에 예수님은 죽지 않고 곧바로 천국에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 중에서도 홀로 무죄하고 죄 없으시고 완전하셨기에 죽음은 그분에게 아무런 요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그분은 당신과 내가 그분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심으로써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사랑의 행동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았다면, 그분은 천국에 아무런 영적 수확도 거두어 가지 못하셨을 것이고 당신과 나는 영원히 잃어버린 자로 운명지워질 것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으므로, 당신의 영원한 운명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당신의 개인적 반응에 의해 결정됩니다. 믿을 수 없는 듯이 보이지만, 어떤 이들은 여전히 그분이 주시는 용서를 거절하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그분의 사랑의 희생에 대해 계속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그분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은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생명과 빛과 사랑의 유일한 근원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상태가 다음의 글에서 묘사됩니다.

죽어 가는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아주 엄청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영영 죽어 가지만, 결코 완전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비로 당신이 죄인이며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음을 예수께 고백한다면,

당신이 주 예수님의 죽음을,  
죽어야 할 당신 대신 죽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당신이 죄에서 돌이켜  
당신을 위해 죽으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을 당신의 마음과 삶 속에 초대한다면,  
주 예수님은 당신에게 이러한 개인적인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6:28, 14:3).

그러나 영생은 단순히 천국에서의 나의 미래에 대한 보장이 아닙니다. 이것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영화롭고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 5:11-12).

영생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격이 사람의 마음에 거하시면, 그 순간에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 엄청난 대가

우리가 이미 본 대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려면, 우리는 우

리 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죄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의 죽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두 만족됩니다. 거기에서 그의 거룩하심이 보전되었고, 그분의 공의가 입증되었고,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과 나를 포용했던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Oswald Chambers)는 지존자를 위한 나의 지선(*My Utmost For His Highest*)이라는 매일 경건 생활을 위한 책자에서 다음과 같은 유익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에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실 거야”라는 말로 하나님의 부성(父性)을 유쾌하게 보는 견해에 주의하라. 이런 감상적인 생각은 신약의 그 어디에서도 자리잡을 곳이 없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 다시 회복시키시는 유일한 배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길이다. 다른 방법은 없다. 우리가 이것을 사실이라고 이해한다 해도 믿음의 단순함으로 죄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 후에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는가는 잊어버리고 말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앞에서 우리는 윌리 홀트의 이타적 행동에 대해 언급했었지만 실제로 갈보리에서 하나님께서 견뎌 내신 고통에 필적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대등할 만한 인간의 행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성령으로 영감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을 더 온전히 나타내시려고 회장을 여십니다. 그 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많은 부분이 우리의 제한된 이해력 때문에 많이 가려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랑의 놀라운 행동을

반영함으로써 하나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조금 알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실 때,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삼중으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몸은 고통에 사로잡혔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분의 사랑은 최대한으로 뻗어났습니다. 이보다 한층 더 치명적인 상처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그의 아버지와 영원히 누렸던 빛과 영광과 평화로부터 단절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견뎌 내신 고통은 참으로 우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육체적 고통을 생각해 볼 때, 그분의 감정적인 고통과 특히 그분의 영적인 고통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죄인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의 분량을 새로운 방법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육체적 고통:** 값비싼 렘브란트의 작품 한 점을 파손시키는 것과 더러워진 종이 한 장을 찢어 버리는 것은 결코 같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완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여타 인간의 죽음과 같은 것이라거나 비견될 수 있을 만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훗날 당하실 육체적 손상을 정확하게 예견한 예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사 52:14)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영역성경은 히브리어 원본의 강력함을 온전히 실어내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을 갖지 못하였음을 설명하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육체적 손상은 예수님 자신도 예언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막 10:33-34).

그리고 이 일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가는 증인들이 눈으로 본 것을 기술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박히게 넘겨 주니라……군병들이 예수를 끌고……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십자가에 못박고”(막 15:15-24).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던 시대에, 로마의 채찍질은 잔인하고도 비윤리적인 고문의 도구였습니다. 채찍은 가죽끈으로 만들어졌고, 거기에 날카로운 뼈나 납으로 만든 창살을 달아서 무게감을 주었습니다. 이 가학적인 도구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등과 가슴의 살을 찢었습니다.

이 비인간적인 고문은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시 22:17)라고 예언한 시편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주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당신과 나를 위해 견뎌 내신 그 설명할 수 없는 육체의 손상은 말 그대로 그 육체의 완전함을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이라 말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감정적 고통:** 십자가에 못박히실 때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적 고통은 그분이 받은 모든 고통 가운데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주 예수님은 불가해한 감정적 절망 역시 경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예수님의 감정적 절망을 말씀하십니다. 이 무시무시한 시간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요한은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요 19:33-34)고 합니다.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렸을 때, 이어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실제로 예수께서 절망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하는 심장 전문가의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심장 전문가는 요한이 기록한 이런 현상은 의학적으로 예수님의 심장이 문자 그대로 부서졌다(broke)는 사실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피가 주위의 주머니, 즉 심낭으로 방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병이 창으로 구주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의 몸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사랑의 심장에 인간의 죄와 고통이 모두 집결되었을 때 주 예수님은 절망(broken heart)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영적 고통:** 우리가 육과 혈의 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적 고통보다는 육체적 고통과 감정적 고통을 더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죽음”을 생각할 때조차도 우리는 단지 우리 육체의 몸이 끝나는 순간에 겪는 육체적이고 감정적인 어려움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 가지 죽음의 유형을 말합니다.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원한 죽음이 그것입니다. 이 죽음 중 그 어떤 것도 생명이 끝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은 모든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인간의 인격적이고 영적인 성취의 극치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진정한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진정과 신령으로”(요 4:24) 예배드릴 수 있는 참된 영적 생명이 없습니다.

육체적 죽음은 분리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영적으로 죽는 것은 혼과 영(인간의 참된 인격)이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죽음은 인간 실존의 끝은 분명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영원하게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는 것은 빛과 사랑과 생명의 유일하고 영원한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어둠, 절망, 저주에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기 전에 영적인 분리의 동일한 고통 역시 견뎌 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육체적, 감정적 고통의 고뇌를 경험하신

곳은 십자가상에서였습니다. 그러나 더할 데 없는 영적 고통의 깊이 체험하신 곳 역시 십자가상이었습니다. 영혼의 고통 속에서 십자가의 예수님은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 27:46)라는 뜻입니다.

어느 날, 루터는 이 불가해한 저주의 영적 고통의 고뇌를 묵상하면서 마치 시체처럼 꼼짝 않고 의자에 앉아 음식도 들지 않고 한참을 있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생각에서 깨어난 그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 그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정오 무렵, 영원하신 아들은 십자가에 거의 세 시간 동안이나 달려 계셨습니다. 그 끔찍한 날, 생명의 근원이신 주 예수 자신께서 죽음의 떡이가 되셨습니다. 분명히 그분의 무서운 고통의 절정은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분리되었던 그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예수님)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을”(고후 5:21) 때 구주의 영혼이 너무나 괴로우셨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죄인이 아니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구주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추방당하고 전적으로 지옥의 세력에 맡겨졌다”는 고통 때문에 괴로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렇게 고통당하실 때 이 사악한 세상에 세 시간이라는 엄숙한 시간 동안 무시무시한 어둠이 내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어둠과 죽음의 본질인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이 당신과 나를 위해 죄가 되셨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의 영원하고 독생하신 아들에게서 물러났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 태양이 숨고  
그의 영광은 가로막혔네.  
능력의 창조주, 그리스도가  
피조물의 죄를 위해 죽으실 때.

아이작 왓츠(1674-1748)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주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의 순전한 죽음이 입증된 역사의 사실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순전한 부활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지막 원수인 죽음과 지옥은 그분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후, 삼 일 만에 그는 무덤에서 일어나셨고 결코 다시 죽지 않으십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주 예수께서는 영광스럽게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은 그분이 십자가 상에서 해주신 일에 대해 기꺼이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그분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유효합니다. 이러한 사랑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궁홀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엡 2:4-6).

놀라운 사랑,  
주, 나의 하나님, 어찌 날 위해 죽으셔야 했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진실로 사랑하시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 죽은 죽음을 죽이는 죽음

생스터 박사는 역사상 가장 탁월한 웅변가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탁월한 웅변을 사용해서 자신의 구주요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일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는 구강암이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기 직전 손짓으로 딸에게 연필과 종이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부활절인 그 날 아침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혀가 없어도,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고 외치고 싶어 못견디는 것이 혀를 가지고도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보다 낫다.”

주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생명을 가져오십니다. 주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음을 정복하시고 무덤에서 생명을 가져오십니다. 파멸과 죽음의 무덤이 어떻게 생명의 창조자를 묶어 두겠습니까?

고린도 교인에게 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전 15:3-4)는 사실을 받아들였기(“믿었기”, 혹은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의 결과들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오늘날, 참된 신자들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내게 그분 안에 있는 새생명을 주셨다”는 영광스러운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때와 3일 후 무덤에서 살아나셨을 때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미리 예상하셨던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대답을 알려 주십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엡 4:9-10).

그렇습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땅 아랫 곳으로 내리셨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땅 아랫 곳으로 내리신 후에 그분은 구약의 성도들(믿고 죽은 사람들)을 이끌고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날, 참신자들은 모두가 행복하게도 죽음의 문은 실제로 영광으로 이르는 통로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모두 이기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고전 15:55-57).

### 죽음의 왕을 정복한 죽음

하나님께서 직접 “혈과 육”을 입으신 것은 당신과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일 뿐 아니라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기”(히 2:14) 위한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기절한 골리앗을 죽이는 데 골리앗 자신의 칼을 썼던

것처럼 예수께서는 죽음이라는 사탄의 무기를 사탄을 완전히 패배시키는 데 이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참된 해방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구원자이십니다. 영원한 죽음과 사탄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 목적인 영적 결박을 풀어 사람들을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사탄을 패배시키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것은 실제 살과 실제 뼈를 가진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첫 사람—무죄하고 죄 없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 때문에 그분은 이제 다른 이들이 따를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 죽으신 분의 유산

주 예수께서 천국으로 가는 길의 선구자가 되셔서 당신과 나를 그의 승리의 열차에 태워 따르게 한다는 것을 아는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그 자신의 사랑 안에서 자신이 천국으로 올라간 후에 이 땅의 신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사실을 아는 것 또한 놀라운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요 7: 38-39).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요 16:5, 14:16, 16:7, 14).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으로 영광을 받으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당신과 나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각각의 신자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로써 부분적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롬 5:5)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사랑-성령에 의해 실제적이 되는-은 인간의 매력이나 애정이라는 높은 봉우리보다도 훨씬 높은 것입니다. 당신은 주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신 사역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분은 성령의 인격 안에서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불가사이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해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하시는 사랑에 대한 개인적 확신을 누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시는 임재에 대하여 유용하게 쓰임받으려면 당신은 사랑이 없는 세상에 그분의 사랑을 실어나르는 운송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가진 하나님에 관한 사상 중에 가장 심오한 것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은 한 유명한 독일 신학자의 이야기를 기억합시다. 놀랍게도 그는 다음과 같은 아이들의 찬송가로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기록하신 말일세……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오, 구원 계획을 낳게 한 그 사람이여,  
오, 그 사랑을 인간에게로 가지고 내려 온 그 은혜여,  
오, 갈보리에서 하나님이 연결하신 그 심연이여,  
거기 큰 자비가 있었네, 거저 주신 은혜였네,  
거기서 용서가 내게 넘쳤네,  
거기서 무거운 짐 진 내 영혼이 자유를 찾았네,  
갈보리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 생각해 볼 문제

1.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로 하는 방법입니까?

행동으로 하는 방법입니까?

2.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셨습니다습니까?

3. 당신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최첨단 장치가 되어 있는 수술실에서도  
모든 외과 의사들은 피와 생명을  
동일시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 둘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 중 하나를 잃으면 둘을 모두 잃는 것이다.  
—폴 브랜드 박사—

## 8

### 어디에서 생명을 찾을 수 있습니까?

시간은 자정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나는 지루한 열 여덟 시간의 기차 여행을 앞두고 함께 여행할 수백 명의 사람들과 파리의 생라자르(St. Lazare) 역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철도 공무원이 개찰을 해서 우리가 기차에 탑승할 수 있게 해주기를 끈기 있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로시와 내가 그들 틈에 끼어 있을 때, 마치 유럽 모든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 군중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중에 어떤 이들은 변변치 않은 여행자 배낭을 편안한 배개 대신 사용하여 잠시 눈을 붙여 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도로 포장된 길에 큰 대자로 누워 있을 때, 그들의 친구들은 망을 보면서 샌드위치를 우적우적 먹거나 병의 물을 훌쩍훌쩍 마셨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 여러 젊은이들과 함께 수다를 떨고 웃었습니다. 젊은이다운 흥분된 열기가 가라앉고 분위기가 진지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찾고 있는 “인생”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곧장 우리의 화제는 도로시

와 나와 함께 여행하고 계시는 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활동적이고 모험적인 젊은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마음을 열고 “참된” 인생을 찾고 싶어하는 자신들의 열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음에 도착하는 도시에서 그것을 이루기 바랐고, 어떤 이들은 다음에 만날 사람들과 나누는 우정 속에서 그것을 이루기 바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다음 마약 먹을 때나 술자리에서 그것을 이루기 바란다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죽을 병에 감염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외딴 아프리카의 마을에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질병을 “마른 사람의 질병”이라고 부릅니다. 전문 의학 용어로 말하자면 이 병은 HIV 양성 반응이라고 진단됩니다.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소년에게나 소녀에게나 이것이 완전히 발병되는 것은 AIDS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끔찍한 고통을 주는 AIDS는 전세계적으로 “피의 질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액이 순환하면서 생명의 강을 청소해 주어야 하는데, 이 질병은 도리어 죽음의 강으로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라는 것이 생명을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를 보면 나는 언제나 혐오감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피에 대한 혐오감을 없애기 위해 언젠가 한번은 런던의 한 병원의 관찰탑에서 외과 수술을 하는 모습을 내려다 본 적이 있습니다. 외과용 마스크로 환자의 피부를 절개할 때, 나는 또 다시 기절할 뻔했습니다. 진땀을 흘리고 창백해진 나를 본 의사 친구는 관찰탑에서 나가 있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더 이상 설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를 보고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관계없이 심한 출혈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에게 생명과 건강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수혈이라는 방법입니다. 오늘날에는, 현대 과학의 기술로 건강한 사람의 정맥에서 뽑아 낸 피가 나중에 죽어 가는 중환자에게 생명을 주는 강으로서 수혈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인 연구로 피의 경이로움과 신비를 밝혀 내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레 17:11). 폴 브랜드 박사는 피에 생명의 본질이 담겨 있다는 사실에 명확한 말로 동의합니다. “최첨단 장치가 되어 있는 수술실에서도 모든 외과 의사들이 피와 생명을 동일시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 둘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 중 하나를 잃으면 둘을 모두 잃는 것이다.”

그러나 HIV 감염 같은 혈액의 오염은 선택적이고 노출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전우주에 퍼져 있는 또 다른 “피의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기”(행 17:26) 때문에 이 끔찍한 질병은 모든 인류에게 감염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근원이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로까지 간다고 말합니다.

첫 사람 아담(고전 15:45)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의 세대들은 피부 색, 거주지, 신분을 불문하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전 15:22)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염된 피를 통해서 죽음이 몸속으로 오는 AIDS처럼, 이 죄로 말미암은 오염도 대대로 전해 내려가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육체적인 질병과 죽음이라는 골짜기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생명을 주는 피의 물질이 인류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는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은 이 순결한 처녀에게 그녀가 어떻게 잉태하게 될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눅 1:35).

이 여인의 씨와 성령의 씨가 만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극적인 사건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인류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콜먼(Robert E. Coleman) 박사는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 잉태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죄의 유전적 전달을 막는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태아가 마리아의 자궁에서 자라기 시작하면서부터, 태아의 몸에 피가 흐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분의 보혈은 순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의 보혈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

\* *The Chemistry of the Blood*라는 저서에서 디한(M. R. DeHaan)은 여러 가지 인정받은 생리학상의, 산(産)과학상의 간행물들을 인용한 후,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어머니는 태아(태어나지 않은 아기)의 작은 몸이 그녀의 비밀스런 자궁 안에서 자라나게 하기 위해 영양 요소들을 공급해 준다. 그러나 모든 피는 태아의 몸속 자체에서 형성된다. 잉태되는 순간부터 탄생하는 순간까지 피는 한 방울도 어머니로부터 아기에게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러나 Robert Coleman 박사는 DeHaan의 결론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신의 저서 *Written in Blood*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 견해(즉, 인간의 몸에 있는 피는 정자가 들어감으로써 태아의 몸 자체에서 형성되는 것이기에 모체와는 직접적인 접촉이 없다는 견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의학 박사들이 그 정당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그러나 그 생물학적인

인간의 피는 믿기지 않을 만큼 복잡한 물질입니다. 오늘날에도 의학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주는 이 기적적인 액체의 신비를 점점 더 많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인간의 몸 속에 있는 피의 기능 중 약간은 몸의 정화, 생명 공급, 질병 추방 등으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기적적인 목적들을 위해 이 보혈의 물결을 당신과 나에게 유용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혈은 “진정한 생명”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항상 예비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죄를 씻어 주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생명을 불어넣어 줍니다. 영적으로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성경은 보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한 것이니라”(벧전 1:18-19).

## 보혈의 깨끗게 하는 능력

얼마 전에 뉴스에서는 한 탐욕스러운 운송 회사가 보전법을 위반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이

---

성질이 어떠하든지간에 나는 그것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 잉태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예수의 보혈의 성경적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죄의 유전적 전달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회사는 유독한 생산물을 유체 탱크에 실어서 운반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같은 탱크에 유동성 식품을 몰래 실어 날랐다고 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치명적인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에 놀라운 운송 체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체계내에서는 세포에 음식물을 실어나르는 동시에 쓰레기를 청소해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혈류내에서 엇갈리면서 오염시키는 일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인간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는 모세 혈관과 머리카락 너비보다도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이 세포로부터 독성이 있는 산물이 제거되지 않으면 필연적인 결과로 질병과 죽음이 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죄로 오염된 부분을 제거하시는 방법을 설명하실 때 묘사하신 그것입니다. 이러한 깨끗하게 하는 일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귄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7).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히 9:22).

## 보혈의 생명을 주는 능력

피의 또 다른 역할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온 몸에 필요한 수분과 영양을 실어나르는 일입니다. 피가 몸의 세포와 조직에 이르지 못하면 그 몸체는 금방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이 피가 순환을 멈출 때 “몸”은 죽습니다. 분명히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자신의 피에 관해 말씀하실 때 그렇게도 제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주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분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요 6:53-55).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이어서 설명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요 6:56).

영적 생명의 참된 근원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죄인들을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흘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흘려진 피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분이 나누어 주신 생명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말로 그분의 피를 마신다는 것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내주하시는 임재의 부활의 능력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고서, 신자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신다!”고 힘차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는 것이 감사와 증거를 나타내는 단순하고 상징적인 행위가 됩니다. 멋진 일입니다!\*

---

\* 슬프게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성찬식” 때에는 떡과 포도주가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살과 피가 된다는 믿음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내주하시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를 의도하셨던 것이 불행하게도 문자적이고 육체적인 사실로 이해되어 왔던 것이다.

예수 보혈의 생명을 주는 초기 단계의 능력은 신자들이 거듭날 때 성령에 의해 신자의 삶에 기적적으로 전달됩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생명을 주는 “보혈을 수혈” 받는 것입니다.

### 보혈의 보호하는 능력

인간의 피에는 또 하나의 기적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피는 생명을 정화하고 생명을 줄 뿐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인도에서 선페스트가 발병했을 때 전세계에는 공포감이 확산되었습니다. 인도에서 출발하는 대륙간 제트 비행기는 증기로 소독을 했고 어떤 경우에는 승객들을 일시적으로 격리시켜 의료 검진을 받게 했습니다. 이 살인마 같은 질병이 다른 나라로 퍼지지 않게 하려고 그 이후 인도를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에 의한 수출입을 일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선페스트가 아니더라도 인간의 몸에는 이상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균들이 끊임없이 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는 거기에 대응하여 공격하는 신비로운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방어하는 혈류는 박테리아의 공격에 대항하여 항독소 혈청과 그밖의 다른 특별한 물질을 운반합니다. 이러한 공격이 일어나면 백혈구(기본적으로 방어하는 목적을 가진)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방어하는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이 인간의 피의 신비한 능력과 아주 비슷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생명을 보호하는 사역도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계속되는 사탄의 힘의 공격으로부터 신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사탄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있을 마지막 때의 전쟁에 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사탄)를 이기었으니”(계 12:11). 당신 역시 그리스도 보혈의 보호하시는 능력으로 사탄의 가증스러운 공격을 이겨 낼 수 있습니다.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직후에 바로 이어서 예언됩니다. 그 때 주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죽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창 3:15).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것은 사탄이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후의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기”(히 2:14) 위해 자신의 보혈을 흘리신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우리가 파리의 생라자르 역에서 만난 환상을 좇는 학생들과는 달리 다른 많은 사람들은 참생명의 원천을 이미 발견했습니다. 얼마 전에 도로시와 나는 자신들이 참생명을 발견했다고 확신하는 백 명의 우간다 사람을 만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그들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생명을 주며 사탄에 맞서는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임박한 위협을 경고하는 케냐의 대사관 직원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나와 아내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우간다에 가게 되

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간다의 목사님들 부부와 함께 하는 연장 세미나 시간을 계획해 두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항공편까지도 미리 계획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군사 구데타가 발생하기 직전 엔테베에서 떠나는 마지막 항공기를 이용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긴장과 공포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된 그 혼란과 무질서는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 지방에서 몇 대 안 되는 자동차 중 한 대를 타고 공항에서 나오니 얼마 전에 폭격으로 우묵하게 패인 길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가자 난폭한 군인들이 우리에게 총부리를 겨누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정부군인지 반정부군인지 아니면 그냥 군복만 걸쳐 입은 살인자들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우리차의 운전사가 자신들의 동족인 것을 곧 알아보고서 우리에게 강도짓을 하거나 다치게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을 기꺼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아내와 나는 세미나를 할 장소가 공포에 사로잡힌 한 마을 중심에 있는 어둡고 지저분한 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들 부부가 도착했을 때 우리는 곧바로 주위의 환경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의 압도적인 느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은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 때의 집회는 우리의 기억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한 최고의 체험으로 영원히 새겨질 것입니다.

온전히 몰두하여서 목사님들 부부는 여덟 시간 동안이나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 도로시와 내가 성경의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르치면 나의 아내는 청중들이 귀중한 내용들을 필기할 수 있도록 칠판에 개요를 적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 쪽에서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술 취한 사람 하나가 입구쪽을 겨냥하고 있는데 그의 공범자가 군중 틈을 뚫고 나와 도로시의 가슴에 총을 겨누며 휘둘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도로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시후, 내게는 영원처럼 긴 시간이었지만, 통역자가 너무나 놀라면서 나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 주정뱅이 군인이 한 말을 믿을 수가 없네요. ‘저 여자의 하나님을 나도 알고 싶다’고 했어요.”

통역자가 말했을 때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강권하여 그의 무릎을 꿇게 했는지, 우리 집회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과 능력에 대한 경외스런 느낌이 술 취한 그 군인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왔는지, 아니면 그의 인간성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깊은 필요를 표현하게 만들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그 소중한 순간에 총 한 자루가 천천히 땅바닥으로 내려갔고 파괴를 목적으로 했던 무기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그 군인이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집회를 마치고 갖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도로시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을 따라 하십시오.” 도로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가엾게도 잘못된 길로 인도된 절박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생명의 원천이 있는 곳, 십자가 밑으로, 죄인들의 구주에게로 인도해 갔습니다.

내가 지금 이 체험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기념할 만한 집회가 있는 이후에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우리 모임 중

에는 그렇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우리 집회 장소에 쳐들어온 그 침입자를 무서워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바로 얼마 전에 자신의 삶 속에서 그러한 위협을 체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현재 목사인 어떤 사람 중에는 자신을 죽이려는 그와 같은 군인에게 당해서 손가락을 날려 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개인적으로 주 예수님을 알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주위에 모여서 그를 안아 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형제인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 어떤 악기 반주도 없이 아프리카의 화음으로 그들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을 떠올릴 때마다 아직도 나의 마음은 경외감으로 가득칩니다.

오, 예수의 보혈  
 오, 예수의 보혈  
 오, 예수의 보혈  
 나의 죄를 씻으시네.

전세계의 지도자들이 그날 우리와 함께 있기만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랬다면 그들도 분명히 종족간의, 인종간의, 나라간의 갈등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을 목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골 1:20-22).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케 된 자만이 다가올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 경외스런 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선포될 것입니다. 그는 “피 뿌린 옷을 입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게 될 것입니다(계 19:16, 13).



## 생각해 볼 문제

1. 당신은 진실로 참생명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참생명을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

2. 성경에 의하면, 인간의 몸 속 어디에서 생명을 찾을 수 있습니까?(레위기 17:11 참고)

3. 주 예수님의 보혈의 영원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보혈의 깨끗하게 하는 능력을 믿습니까?

당신은 보혈의 생명을 주는 능력을 믿습니까?

당신은 보혈의 보호하시는 능력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 11:25-26).

예술가의 작품이 지닌 완벽함, 인간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  
펼쳐진 풍경의 장엄함, 이중 그 어떤 것도 소리만으로는  
충분하게 묘사될 수 없다.  
볼 수 있는 시력이 필요하다.  
물리적인 시력이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인간에게 체험하게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시력은 하나님의 실제 임재와 능력과 사랑을  
인간의 영혼에 전달해 준다.

## 9

#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1940년대초 의학은 안과 수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서 떼어낸 건강한 각막을 맹인의 눈에 이식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생스터 박사는 자기가 목격했던 최초의 각막 이식 수술 성공의 결과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생스터 박사는 이른 새벽 두 사람을 데리고 잉글랜드의 아름다운 서리 다운즈(Surrey Downs)로 갔습니다. 한 사람은 선천적으로 맹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녀의 안과 의사였습니다. 그녀는 수술 후 며칠 동안 눈을 보호하기 위해 빛을 차단하는 붕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붙인 붕대를 서서히 한 겹씩 벗겨 갔습니다. 그녀는 벌써 빛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인식하고 아주 흥분했습니다. 동이 뜨기 전 생전 본 적이 없는 이 여자의 눈에서 마지막 붕대가 벗겨졌습니다.

그 날의 일출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장엄했습니다. 그 날 아침 태양이 지평선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림자가 차츰 짧아지며 초록색 나뭇잎들이 아침의 장관을 배경으로 그 섬세한 아름다움을 수

놓았습니다. 새들은 먹이를 찾아 이슬이 말라 가는 잔디 위를 부지런히 뛰어 다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생전 처음으로 볼 수 있게 된 여인에게 강렬한 기쁨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오, 당신이 내게 설명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었지만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일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장려함 앞에 경외감에 사로잡힌 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은 전혀 본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빨간색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또는 빛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몰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설명하는 말이 시각의 준거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미술가의 아름다운 그림, 인간 얼굴의 환한 빛, 장엄한 풍경 등은 음성으로 묘사될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런던의 어느 큰 병원에서 마지막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의학과와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움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만 대화를 좀더 계속했습니다. “그래요, 나도 당신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당신은 마치 깜깜한 방에 살고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요. 나는 그것이 어떤지를 압니다. 나도 영적 흑암 속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태양이 빛나는 곳에 있습니다. 데이비드(David),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그 어두운 방에서 나와 하나님의 빛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날 데이비드는 무릎을 꿇고 주 예수께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시

고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면서 한 말을 나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나는 이처럼 놀라운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해 봤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육안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계의 아름다움을 인간에게 전달해 주는 것처럼, 영적인 눈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사랑의 실재를 인간의 영혼에 전달해 줍니다.

주 예수께서는 승천하신 후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시면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 깜짝 놀랄 만한 진단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눈먼 것과……을 알지 못하다”(계 3:17)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눈먼 사람이 자기의 그 비참한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경우를 상상해 보았습니까? 주 예수님은 영적 소경으로 진단을 내린 후에 계속해서 처방을 내리십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계 3:18). 그 처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적인 눈은 영적인 안과 수술을 필요로 합니다. 그 일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당신이 처음 태어날 때 육체적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 출생은 영적인 안목과 깨달음을 주지 못합니다. 당신이 영적인 흑암에서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고후 4:6)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번째 태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요 3:6-7). 그것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요 3:3). 따라서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당신도 역시 거듭나야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삶에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공백이 있어 채워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 영적 공허함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주하심으로써만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당신의 인생 가운데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목적과 필요가 당신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은 단지 당신의 죄가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영적으로 깨끗해져서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와 사실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의 죄가 사함받아야 합니다.

나는 한 젊은 아프리카 신자와 이야기하면서 그가 자기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강렬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주 나는 약 200명의 목사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자고 그를 초청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목사들이 모이는 곳에서 수백 마일이나 떨어져 있었지만 나는 그에게 그 멀고 험한 길을 여행해서 우리를 만나러 오라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 아프리카 사람 윌리엄(William)은 지쳐 늘어진 채로 그 장소에 도착했지만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더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아주 기뻐했습니다. 오는 길에 윌리엄이 탄 버스는 너무 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여행 끝에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주 예수님도 자신이 당신과 교체하고 당신이 그와 교체할 수 있도록 당신의 삶에 들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마음이 죄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임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죄를 사하는 것도 필요한 수단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당신을 향한 그의 궁극적인 바람이었습니다. 당신 역시 그보다 덜한 것에 결코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당신이 창조된 목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사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지금 여기서 영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계시면 당신의 삶에는 “당신이 들어갈 천국의 일부분”이 들어 오게 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 5:11-12).

우리의 친구 데이비드가 그리스도께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신의 마음에 들어 오시라고 기도드린 후에 “나는 이처럼 놀라울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해 봤습니다”라고 감격해 한 것은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부활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구세주를 알고 싶어하는 욕구를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당신을 위해 하고 계시는 일을 그들을 위해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님은 주(“큐리오스” <Kurios>, 여호와)시며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자, 즉 구주를 자기들이 배척했고 그에게 무관심했었음을 생각하게 되었고 따라서 엄청난

죄의식과 그분에 대한 필요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마음에 찢려” 진지하게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물었습니다(행 2:37).

베드로의 첫번 대답은 회개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믿는 체”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는 믿음은 의지하는 자세와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의뢰하면서 예수님께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을 위해 해주신 일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과 죄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 때에 비로소 성령께서 안과 수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사물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됩니다. 사실 회개라는 말의 의미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신생(new birth) 경험에는 하나님과 죄에 대한 마음의 근본적 변화가 포함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변화. 회개(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그릇된 개념들을 거부합니다. 나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들의 옛 방식과 이교도적 습관들의 요구에 대항하여 많은 갈등을 한 후에 예수께로 돌아와서 그들이 모시던 숭배물들을 태워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나는 성경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종교나 사회 제도로부터 돌아선 친구들이 커다란 사회적 압력을 당하고, 심지어는 위협과 위협에 직면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는 여호와—유일한 구세주 하나님—시라는 굳건한 확신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변화. 당신이 믿음으로 구원을 체험하게 되면 당신의 죄악 됨을 유감스러워하고 부끄럽게 여기게 됩니다. 죄에 대한 당신의 마음의 변화(회개)는 당신의 죄를 더 이상 무시하려 하지 않



는 것이며, 당신의 죄에 대해 더 이상 핑계하지 않는 것이며, 당신의 의로 구원받으리라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의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 같습니다(사 64:6). 그러나 당신이 예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던 일들로부터 돌아서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한 육군 하사가 막사에서 떠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그는 두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친구에게서 온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상관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앞의 편지에는 친구의 결혼식에 오라는 초청이 있었고 후자는 상관의 그의 임무에 대한 보고를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분명히 초청과 명령은 다릅니다. 초청은 예의를 갖추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령에는 복종이나 거역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을 사랑하시고 또 죄가 당신의 생명을 파멸시킬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회개하기를 초청하지 않고 명령하십니다. 바울은 헬라의 학문 중심지에서 철학자들과 구경꾼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말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행 17:30). “사람을 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당신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당신의 죄에 대한 그릇된 생각으로부터 돌아설 때 그리고 당신이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 하나님으로 모시는 방향으로 돌아설 때,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원하는 마음과 실행하는 행동(“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 <빌 2:13>)을 주신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욕구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될 때에 비로소 당신의 삶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잠재력

에 도달하게 됩니다.

친구로서 나는 당신에게 지체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간청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찾으십시오. 물론 당신이 앵무새처럼 말을 반복하기만 한다면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3)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개인적인 반응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안한 기도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나의 기도

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기 위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주 예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것과 깨끗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보혈을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나의 삶을 그 보혈의 보호하심 아래 내려놓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거듭났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임을 알게 하심이 놀랍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벧전 2:6).

이제, 당신이 방금 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사시고 그분이 당신이 말을 할 수 있게, 그분을 위해 살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10:9-10).

## 생각해 볼 문제

1. 푸짐한 선물을 받았을 때 당신의 감사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제게 줌 주세요”라는 말입니까?

“감사합니다”라는 말입니까?

2.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느낌입니까?

믿음입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 2:8).

3. 주 예수님을 믿는 당신의 믿음에는, 회개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감사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4. 이제 당신은 그분이 당신에게 해주신 일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이 어떠한 분이라는 사실 때문에 당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까?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시험도  
 먼저 하나님을 거치고,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으면  
 나에게로 곧장 오지 않는다.

일단 그것이 나에게로 왔으면, 그것은 내가 그 순간에는  
 깨닫지 못하는 어떤 큰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겁먹지 않을 때,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고  
 그것을 내 마음에 복 주시기 위한 어떤 위대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온 것으로 받아들일 때,

어떠한 슬픔도 나를 괴롭히지 못하며,

어떠한 시험도 나를 방심하게 하지 못하며,

어떠한 환경도 나를 초조하게 만들지 못한다.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기에

기쁨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얻는 승리이다!

—앨런 렛퍼스(Alan Redpath)—

## 10

###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 원은 전적으로 거저 얻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구원을 획득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주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해 놓으셨습니다.

당신이 앞 장에 제시되어 있는 기도(혹은 이와 유사한 기도)를 진지하게 했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을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

당신은 틀림없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는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천국으로 돌아가시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요 15:4)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

점에서 보면, 신자들은 그의 아들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 안전하게 보존되고 보호받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참신자들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은 그들을 통해 질적인 삶을 소개받게 됩니다. 그 질적인 삶은 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가능합니다.

불 속에 있는 쇠 부지깥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을 본 당신은 “불 속에 부지깥이가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부지깥이 자체가 빨갱게 달아올라 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지깥이 속에 불이 있다”고 말해도 맞는 말일 것입니다. 혹은 양동이의 물 속에 가라앉아 있는 컵을 상상해 보십시오. 물 속에 컵이 있습니다. 그러나 컵 속에도 역시 물이 있습니다!

당신이 거듭났을 때, 성령은 실제로 당신을 그리스도의 몸 속으로 “세례받게 하셨습니다”(담그셨습니다). 이제 성경은 당신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다(골 3:3)고 확신시켜 줍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또한 당신이 거듭날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시는 생명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이고 영광스러운 실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골 1:27)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거듭났기 때문에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사십니다. 멋진 일입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진리의 자유케 하는 효과에 대해 성경이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더 숙고해 보도록 합시다.

## 내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고전 12:13).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롬 6:3-4).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음이니라”(골 3:3).

몇 년 전에 나는 백혈병에 걸린 한 소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소년은 겨우 일곱 살이었고 세 달에 한 번씩 척수 주사를 맞으러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한 번은 의사가 소년에게 주사 바늘이 척수를 찌를 때 왜 다른 소년 소녀들처럼 울지 않는냐고 물었습니다. “아프지 않니?” “오, 아뇨. 아파요.”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주사 바늘이 저한테 오기 전에 예수님의 손을 먼저 뚫고 지나간다는 것을 모르시나봐요.”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당신의 삶을 시험하고 건드리는 모든 것들을 충분히 관리하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주 예수를 영접한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이 삶의 모든 요구를 채워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아들이는 것



도 동일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최초의 믿음의 행위가 그 문을 열어서 당신이 계속적인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골 2:6).

당신이 거듭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단순히 예수님의 삶을 흉내 내길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성공하지 못하고 완전히 낙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그의 놀라운 예비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요구와 정죄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는 자기 노력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리라는 그 어떤 소망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리라고 우리 자신에 대해 갖는 모든 신뢰감의 흔적들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하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모든 충만함에 대하여 영광스럽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유혹과 압박을 우리 홀로 처리하려고 애쓸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새신자는 거듭난 후에 자신이 혼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거듭나기 이전처럼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명백하게 경고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

사실, 자기 노력의 어리석음에 대해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의 신자들에게 실제로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오직 믿음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의 원리로부터

돌아선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 바울은 자명한 대답을 유도하는 수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찌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나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갈 3:1-3).

물론 그들은,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행위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를(롬 5:17) 바랄 수 있는 믿음과 동일한, 의지하는 믿음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의지하는 믿음이 불행하게도 무익한 율법적 자기 노력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당신이 새롭게 발견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계속 살아 간다면 갈라디아에서 있었던 불행한 사태는 결코 당신의 경험이 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갈 2:20).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의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롬 8:10-11).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골 1:27).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교”(엡 3:17).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며 나는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편히 거하십시오.” 당신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삶에 대해 의지하는 믿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공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다른 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기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신의 삶에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이 살아 가면서 당면할 수밖에 없는 유혹들과 사건들에 대해 충분히 응전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신학자”가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설교자”가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선교사”가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마음속에 자신의 거처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이제 당신을

통해서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순결하신 그분은 이 부도덕한 세상에서 당신의 순결이십니다. 승리자이신 그분은 이 유혹의 세상에서 당신의 승리가십니다. 사랑이신 그분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당신의 사랑이십니다. 진실로 부활이며 생명이신 그분은 이제 바로 당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당신이 겸손하게 당신의 삶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신”(눅 19:10) 주 예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만든다면 또한 당신은 당신을 통해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고 구원하시도록 그분을 의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신자들이 알게 될 때 삶은 참으로 흥미 진진한 것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으로 돌아가셨지만 결코 당신에게서 떠나가신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그분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요 14:19-20).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모든 자원들이 어떻게 현실로 실용화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정신적 믿음과 경험적 믿음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제 기능을 하는 믿음을 갖고 싶어하는 당신의 열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감사로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실현

된다는 것이 그 질문에 대한 간단한 대답입니다. 참된 믿음은 언제나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믿음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분께 감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그 때에 그분이 정확히 그 필요한 것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 그분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히 11:6).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열망한다면 주 예수께 그분의 모든 충만하심에 대해 끊임없이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 때문에 박해로 고통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구별하라, 크게 모시라, 왕노릇하시게 하라)”(벧전 3:15)고 권면합니다. 그 안에 믿음 때문에 박해받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공공연한 비법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당신 삶의 주인이신 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아도나이(*Adonai*)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도나이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주”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인”이라는 “주”의 개념은 베드로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고 했을 때 사용한 그 개념입니다.

주 예수님이 당신 삶에 주인이시기에 당신은 그분과 지속적인 교제를 누립니다. 그럴 때에만 당신은 당신 삶에서 매일매일의 필요와 사건들에 대해 진정으로 자유롭게 그분께 의지하게 됩니다. 찬송가 작가 조지 매더슨(*George Matheson*)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주여, 나를 포로 되게 하소서,  
 그러면 자유롭겠나이다.  
 강권하여 나의 칼을 내려놓게 하소서,  
 그러면 승리자가 되리이다.

자유에 대한 통상적인 개념과는 달리 진정한 자유는 내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권리를 갖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데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고 한 바울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1859년 북 아일랜드에 부흥이 왔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회심한 사람들은 “믿음의 서약”에 서명함으로써 그리스도께 대한 자신의 개인적이고 진지한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그 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삶을 변화시키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 나라의 도덕적인 분위기는 실제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한 서약문에 서명하는 것이 그다지 가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다음 면에 나오는 서약문에 서명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반응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히 13:20-21).

## 믿음의 서약

1. 나는 성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 되신 하나님을 섬기며”(살전 1:9).

2.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다.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행 5:31).

3. 나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는 것을 받아들인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롬 5:5).

4.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규범으로 받아들인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딤후 3:16-17).

5.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받아들인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룻 1:16).

6.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롬 14:7-8).

7. 나는 이 일을 신중하게 한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15).

8. 나는 이 일을 성실하게 한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의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후 1:12).



9. 나는 이 일을 기꺼이 한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 하니”(시 110:3).

10. 나는 이 일을 영원히 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롬 8:35).

서명\_\_\_\_\_

날짜\_\_\_\_\_